

장고도의

등바루놀이



등불싸기놀이

太川文化院

장고도의

등바루놀이

등불싸기놀이

장고도의

등바두놀이

등불싸기놀이

등서
불기

大川文化院

일 러 두 기

1. 이 책에서 사용된 용어는 현지 주민들이 사용하는 방언을 가능한 그대로 사용하였다.
2. 이 책에서 나오는 노래는 장고도 노인정에서 편알순 외 11명의 노모들께서 2001. 7. - 2001. 8. 에 제보한 것을 채보 한 것이다.
3. 도움말씀 주신분들의 연령은 구술당시의 연령이므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4. 본 서의 잘못된 사항이나 미진한 사항은 차기 사업에서 수정 보완할 예정이다.
5. 참고문헌의 순서는 먼저 사용한 순으로 정리하였다.

發 刊 辭



우리 民族은 5千年 悠久한 歷史를 자랑하며 文化民族의 主體性과 獨創性을 持續시켜 왔습니다.

卽 人間은 다른 動物과는 달리 大自然속에서 人間 스스로가 創造한 生活環境과 넓게는 生活樣式인 文化를 가진 것입니다. 文化는 여러 世代동안 傳承된 것으로 그 속에는 當然히 獨特한 傳統과 얼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保寧地方은 산과 들, 바다가 調和되어 어우러진 山紫水明한 곳으로 傳統文化가 多樣하게 傳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高度의 知識情報社會의 發達과 物質文明의 氾濫은 生活環境을 急激하게 變化하게 하였고, 그 과정에서 文化的 傳統이 크게 毀損되면서 歷史의 資料들은 지닌 意味와 價値가 밝혀지기도 前에 사라져가고 있는 現實에 놓여있습니다.

앞으로 歷史의 물줄기에는 많은 變化가 있을 것입니다. 巴야흐로 市民의 文化的 力量이 地域의 位相과 競爭力을 決定하는, 文化的 價値가 큰 몫을 차지하는 時代가 到來되고 있어, 우리 民族의 傳統的 뿌리를 民俗놀이에서 찾아보려는 地域文化運動이 일어나고 있는 視點에 있습니다.

따라서 鄉土文化를 主導하는 地域人들은 이제부터 우리地域에서 전승되는 民俗놀이를 통해 市民들의 文化意識向上과 情緒涵養 등 삶의 質을 높여주는 데에 앞장을 서야 할 줄 압니다.

우리 地方의 鰲川面 島嶼地域에서는 約 200餘年 前부터 해마다 陰曆 四月 海棠花 滿發하는 季節에 섬 마을 閨秀들이 모여 굴캐기와 까그메·쭈방넘기를 비롯한 여러 놀이를 즐기던 등바루놀이와, 약400餘年 前부터 싯달 그름이 되

면 소년들이 모여 섬마을의 안녕과 豊漁를 기원하던 등불씨기놀이가 傳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歲月의 흐름에 따라 지금은 이 놀이들이 그 자취를 거의 찾을 수 없으며 오직 長古島에서만 힘들게 그 命脈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民俗은 하나의 民族의 토착적 藝術이라 할 수 있으며 地方化時代에 郷土文化暢達은 現代 우리들 使命입니다. 따라서 先祖들의 옛 魂을 ‘溫故知新’정신으로 다시 찾고, 새로운 생각을 導出하는 ‘法古創新’으로 새로운 文化를 創造하여 發展시키는 것은 우리들의 課題이기에 民俗의 뿌리를 찾아 그 脈을 이으려고 努力은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名實共히 郷土民俗誌로서 未洽한 点이 한 두 가지가 아닌데 앞으로 많은 관심과 조언 바랍니다.

모쪼록 이 媒體를 통하여 이 땅의 숨쉬는 郷土民俗文化가 힘있게 雄飛되었으면 하는 바람 懇切합니다. 바쁘신 中에도 玉稿를 내주신 柳在均先生님께 甚深한 謝意를 表하며 郷土人 여러분께 이 한 卷의 冊을 膳賜하겠습니다.

2001. 12.

大川文化院長 尹 炳 培

책을 내면서



우리나라의 민속놀이는 일제시대와 한국전쟁이라는 장벽에 가로막혀 많은 부분들이 훼손되고 유실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950년대 후반 전국민속경연대회의 시작과, 1960년대 초 문화재 보호법이 공포되던 시기를 즈음하여 민속문화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부흥기를 맞이하는 듯 하였습니다. 이 시기에는 여러 지역에서 지역문화 창달이라는 이념 아래 우후죽순처럼 향토문화축제가 탄생하였고 그 향토문화축제는 훼손되고 유실된 놀이들을 발굴하여 하나, 둘 다시 선보이기 시작했는데 짐작하건대 등바루놀이나 등불써기놀이 역시 1980년과 1992년으로 시기는 늦지만 같은 맥락에서 재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발굴된 놀이들은 각각 1980년 ‘전국민속경연대회’나, ‘만세보령 문화제’, 1997년 ‘청소년민속예술제’ 등의 많은 문화행사에 필연적으로 참여하게 되면서 본래의 민속놀이 전승원리에서 이탈하게 되었습니다. 즉 심사위원이나 많은 관중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공연물로써의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멋을 내고, 율을 내는 등 인위적으로 체계화 하다보니 그 과정 속에서 옛 고유의 의미는 많은 부분 상실되었고 내용은 다소가 변형되었거나 왜곡되기에 이른 것입니다.

때문에 원형을 밝혀보려 욕심을 가지고 노력하여 그 결과로 한 권의 책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집필을 마치고 나니 일천한 지식과 여러 가지 여건으로 많은 부분을 밝히지 못했고, 또 잘못된 부분도 있으리라는 생각에 마음이 무겁기만 합니다. 이 시점에서 바램이 있다면 이 책에서 밝혀지지 않은 부분과 잘못된 부분에 대한 연구를 지역 문화를 사랑하여 보호하고 가꾸는 지역의 지식인들께서 계속하여 해주시는 것입니다.

끝으로 이 책이 발간되기까지 많은 관심을 보내주신 장고도 주민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01. 12.

柳 在 均

차 례

- 제 1 장 장고도의 자연과 문화적 환경 7
 - 제 1 절 장고도 자연적 환경 9
 - 제 2 절 장고도의 문화적 환경 11

- 제 2 장 등바루놀이 17
 - 제 1 절 충청도서지역 등바루놀이 개관(概觀) 19
 - 1. 등바루놀이의 목적 19
 - 2. 놀이 시기(時期) 19
 - 3. 놀이 장소(場所) 20
 - 4. 놀이 참가 대상자 20
 - 5. 각 도서의 등바루놀이 21

 - 제 2 절 장고도의 등바루놀이 24
 - 1. 등바루놀이 목적 24
 - 2. 유래 및 어원(語源) 27
 - 3. 놀이 시기(時期) 28
 - 4. 놀이 장소(場所) 29
 - 5. 놀이 참가 대상자 30
 - 6. 장고도 등바루놀이 특징(特徵)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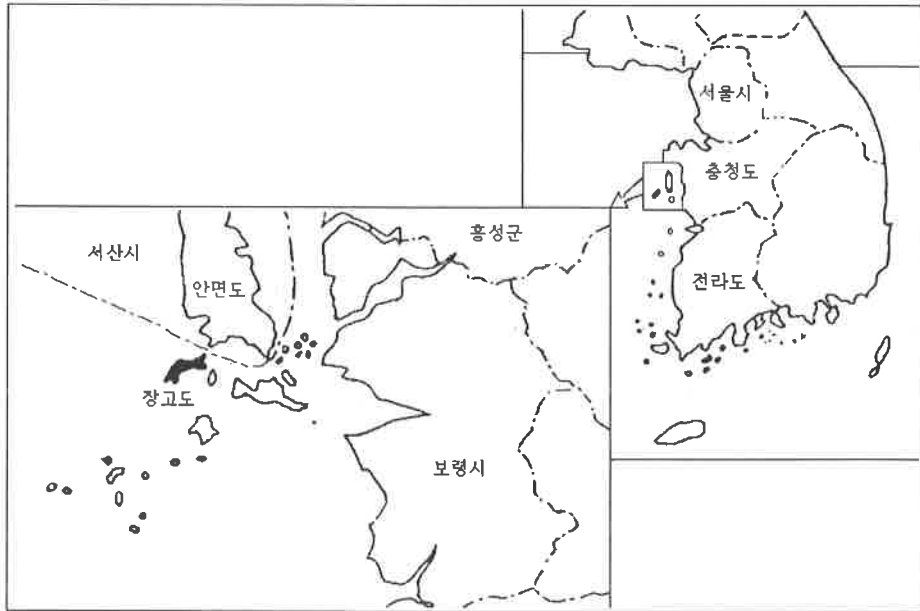
 - 제 3 절 장고도에서 행하여진 등바루놀이 31
 - 1. 진행과정 31
 - 2. 전승되어 온 과정 47
 - 3. 등바루놀이 자료 사진 48

제 4 절 등바루놀이 시연행사의 실제	58
1. 시연목적과 가치	58
2. 단계별 진행과정	59
3. 시연시 유의할 점	88
4. 소품제작 방법	88
제 3 장 등불써기놀이	91
제 1 절 장고도 등불써기놀이 개관	93
1. 유래(由來) 및 어원(語源)	94
2. 놀이 시기(時期) 및 장소(場所)	95
3. 놀이 참가 대상자	95
4. 등불써기놀이 특징(特徵)	96
제 2 절 장고도에서 행하여진 등불써기놀이	96
1. 진행과정	96
2. 전승되어온 과정	108
3. 등불써기놀이 자료사진(資料寫眞)	109
제 3 절 등불써기놀이 시연행사의 실제	111
1. 시연목적(試演目的)과 가치(價値)	111
2. 진행과정	112
제 4 장 문제점 및 제언	135
제 1 절 문제점	137
제 2 절 제 언	138
◆ 참고문헌	141



장고도의 자연과 문화적 환경

제1절 장고도 자연적 환경



<지도-1> 장고도 위치

泰安海岸國立公園에 속하는 장고도는 행정구역상 보령시 오천면 삽시도리(插矢島里)에 속한다. 장고도라는 이름은 “멀리 떠있는 배에서 섬을 바라보았을 때 그 모양이 마치 장구를 뉘어 놓은 모양과 닮았다 해서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장고도는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등의 문헌에 보면 장고도(長鼓島)라 기록되어 있으나 일제시대 초에 이동명(里洞名)명칭 기록에서부터 장고도(長古島)라 표기하여 왔다.”¹⁾ 조수간만의 차가 크고 섬 북서쪽으로 암석해안이 발달하였다.

동경 126° 20′ 북위 36° 24′ 에 위치한 이 섬은 대천항에서 22.0km, 오천항에

1) 보령군, 『내고장 保寧』, (충남: 보령군, 1983), 183.

서 20.8km, 서해안 태안반도(泰安半島)에서 약 6km 거리에 있으며 대천항에서 여객선을 타고 가면 약 1시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섬의 면적 1,501km²이며 경지면적은 논 0.23km², 밭 0.05km²이며 해안선의 길이는 8.6km 이다.

섬의 인구는 <표-1>에서와 같이 해마다 줄고있는 추세이며 현재(2001.12.)는 여자 144명, 남자 160명으로 총 304명이 살고 있고, 세대수는 103세대²⁾다.

〈표-1〉 장고도 인구 수 변화

(단위 : 명)

년 도	1970년대 중반	1980	1985	1990	1990년대 중반	2001	비고
연도별 인구수	443 (‘73.12.31)	376	337	324	347 (‘96.01.01)	304 (‘01.12.)	

장고도는 浙江片氏, 密陽朴氏, 晉州姜氏의 3氏族이 78%³⁾를 차지하는 各姓村落으로 성씨별 각 세대수⁴⁾를 보면 박씨25, 편씨22, 강씨13, 최씨5, 이씨4, 김씨3, 모씨1, 송씨1, 유씨1, 윤씨1, 조씨1로 총 77세대가 살고 있다.

“편씨는 410 여 년 전에, 이어서 약 60년 후에 박씨, 강씨 순서로 入郷했다고 하나, 편씨 이외는 확실한 전승이 밝혀지지 않고 있다.”⁵⁾

이 섬은 주변 다른 섬에 비해서 비교적 좋은 어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주민들이 어업에 종사하고 있다. 새우, 민어, 송어, 갈치의 어획량이 많고 지역 특산물인 전복과 해삼을 비롯하여 김, 굴, 백합 등의 양식업이 활발하다.

2) 주민등록상 세대 수 임.

3) 주민등록상이 아닌 실제거주 세대수 임.(제보자: 장고도 이장, 2001. 12. 현재)

4) 주민등록상 세대수가 아니라 군부대, 보건진료소, 초소 인구를 제외한 실제 섬에 거주하는 세대수를 나타낸 것 임.(제보자: 장고도 이장, 2001. 12. 현재)

5) “浙江片氏의 始祖는 임진왜란 때에 명에서 援護隊로 보낸 片碣頌督將軍(片碣頌督將軍)으로 羅州에서 중국으로 귀국하는 도중 長古島를 거쳐 安眠島에 건너갔다고 한다. 바로 그의 아들 중 한 사람이 長古島의 入村祖가 되었다고 한다.” 스즈키 후미코, 『長古島의 儀禮生活』, 大保文化, 第2號, (충남: 大保文化研究所. 1992), 224.

또한 1960년대 초 편갑득씨가 처음 시작한 염전⁶⁾이 지금도 있고 다른 산업시설로는 시설용량 240kW 규모의 발전소가 있다.

제2절 장고도의 문화적 환경

현재까지 장고도에서는 조개더미유적 세 곳과 선사시대 집자리유적 한 곳이 발굴 조사되었는데 여기에서 나온 여러 가지 유물로 보아 청동기 이후부터 이 섬에서는 사람이 거주한 것으로 보인다. 이 섬에서 선사시대부터 사람이 거주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주변의 다른 섬에 비하여 어로조건이 좋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렇게 일찍부터 사람이 거주해온 관계로 장고도에는 많은 의례가 발달하였는데 대표적인 것으로는 조상숭배의례를 비롯하여 생업의례(生業儀禮)인 안택고사(安宅告祠)·당제(堂祭)·용왕제(龍王祭)·선고사(船告祀), 그리고 가내안녕(家內安寧)을 기원하는 터주제를 들 수 있다. 그리고 주민들의 놀이로서 등바루놀이·등불써기놀이가 행해져왔다.

또한 장고도에는 다음과 같이 전해지는 지명이 있다.⁷⁾

◇ 가운데방죽 : 큰 당산 뒷들의 한가운데 있는 연못이다. 가운데에 방죽이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 군판이 : 당산 아래쪽에 있는 들을 말한다. 작은 언덕이 경사지게 놓여 있는 들이라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6)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76 : p.422.』, 나도승·최원희, 『인문환경』, 島嶼誌 中, (대전: 충청남도, 1997), 197~198. 再引用.

7) [보령시, 『保寧의 地名 (上)』 (충남: 보령시, 1998), 172~175], [김태균, 『방언과 구비문학』, 『島嶼誌』, 中, (대전: 충청남도, 1997), 528~530.]을 인용하여 '등바루놀이', '등불써기놀이'와 관련한 지명을 중심으로 재구성하였음을 밝힌다.

- ◇ 노랑배 : 명장섬에 있는 바위이다. 바위의 색깔이 노랑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 ◇ 당산 : 장곰 마을 뒤에 우뚝 솟아 있는 산이다. 수호신인 진대신을 모신 당집<사진-1>이 있는 산이라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 대동샘 : 당산 서쪽에 있는 샘이다. 큰샘, 당샘이라고도 불린다. 마을 소년들은 선달 그림날 등불써기 놀이를 할 때 이곳에서 제를 올렸다.
- ◇ 대머리 : 섬의 허리 북쪽에 펼쳐진 들이다. 이 대머리들에서 가운데 넓은 쪽을 큰대머리, 구릉지 지대의 작은 들을 작은대머리라고 부른다. 산에 비하여 지대가 파여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 ◇ 대촌 : 대머리에 있던 마을이다. 옛날에는 사람들이 살았는데, 지금은 살지 않고 고기잡이철에 임시로 거쳐할 뿐이라고 한다.
- ◇ 동무대 : 서쪽. 즉, 마을북쪽에 있는 낮은 산이다. 소년들은 선달 그림날이 되면 이곳에서 등불써기놀이를 하였다.
- ◇ 돛단녀 : 남쪽에 외파로 떠 있는 암초를 말한다. 섬의 모양이 마치 돛을 달고 있는 배와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물이 많이 나갈 때는 건너갈 수 있으며, 일명 돛단섬이라고 부른다.
멸치, 까나리, 실치, 우럭이 많이 나온다.
- ◇ 판서구지 : 장고도 남쪽 삼시도와 사이 에 있는 작은 바위 섬.
- ◇ 판투녀 : 장고도 서쪽에 있는 간조때 나타나는 바위너덜. 작은 버녀의 동쪽에 있다.
- ◇ 마녀 : 장고도 서쪽에 있는 바위섬. 진여와 중미산 사이에 있다.
- ◇ 명장섬, 판명장섬 : 장고도 북쪽에 만조가 되면 섬이 되고, 간조가 되면 장고도와 연(硯)해지는 되는 섬 2개가 있다. 하나는 명장섬이고 다른 하나는 판명장섬이라고 부른다. 이곳은 갯벌과 바위로 이루어져 있다.
- ◇ 버섯산 : 서 남쪽에 있는 산이다. 먼 곳에서 바라보면 버섯처럼 생겼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 ◇ 부여 : 장곰 마을 앞에 떠 있는 암초이다. “옛날에 섬의 갯벌에는 해산물이 많이 나와 아낙네들이 모여드는 곳이라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여중에서 가장 큰 아버지 여이기 때문에 부(父)너라 부른다”는 말이 전해지고 있다. 조개, 김이 많이 나온다.
- ◇ 서구지 : 섬의 남서쪽에 있는 작은 만(灣)이다.
- ◇ 소곶이 : 장곰마을 당산 남쪽에 남동쪽으로 향해 있는 작은 들이다. 옛날 마을 사람들이 소를 매어 놓고 풀을 뜯게 한 들, 또는 작은 연못[소(沼)]이 있었던 들이라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 ◇ 송녀 : 섬 북동쪽에 있는 암초이다. 물 속에 숨어 있는 바위라고 해서 숨녀라고 부르다가, 이가 변하여 송녀가 되었다고 한다.
- ◇ 어릿금산 : 대머리 북쪽에 있는 조그만 산이다. 이곳은 공동묘지가 있다.
- ◇ 용구멍 : 섬 북쪽 해안에 대문처럼 바위에 뚫린 구멍을 말한다. 이 바위에 난 구멍은 용이 승천할 때 뚫린 것이라 한다.
- ◇ 용난바위 : 명장섬의 가장 남쪽에 붙은 바위. 옛날에 이무기가 용이 되어 승천할 때 100년 동안 수도하였던 바위라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 작은버녀 : 장고도와 부녀 사이에 있는 작은 바위 너덜.
- ◇ 장고도 6녀 : 큰비파녀 투녀, 작은비파녀, 판투녀, 진녀, 마녀 등의 암초를 말한다. 섬의 북쪽에 있는 판명장섬 아래 남서쪽으로 부근에 제각기 특징 있는 모습을 하고 6개의 솟은 바위가 펼쳐진 것을 6녀라 한다. 큰 비파녀는 아낙네들이 무엇을 거두어들이는 모습이고, 투녀는 선녀가 악동하는 모습이다. 작은 비파녀는 작게 솟은 바위로 바람이 스칠 때마다 악기소리를 낸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판투녀는 투녀 밖에서 바다로 나가는 선녀의 입상이고, 진녀는 섬으로 들어와 앉은 입상이다. 또 마녀는 송곶과 같은 입상으로 심술궂은 바위라 한다. 이 부근은 해삼과 전복 등 장고도 특산물이 많이 나는 보고(寶庫)다.

- ◇ 장곰 : 섬 중앙에 있는 마을을 통칭하여 부른 이름이다. 섬사람들은 이 마을을 나누어 위쪽에 있는 웃말, 뒤쪽에 있는 뒷말, 가운데에 있는 가운데말, 아래쪽에 있는 아랫말이라고 한다.
- ◇ 정골 : 섬의 최남단에 있는 곳이다. 뱃사람들이 정든 곳이라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일부에서는 파도가 의외로 유유히다고 하여 윤골이라고 한 것이 옹골이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남쪽에는 돛단녀가 있고, 옛날에 배를 정박시키고 물때를 기다렸던 곳이다.
- ◇ 종두래 : 섬 북쪽에 있는 곳(串)이다. 부근에는 암벽녀가 많으므로 주의 하여야 하는 곳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청달산 북쪽에 있으며, 배들이 서해 큰바다로 고기잡이를 나갈 때 지나는 곳이다. 이곳에서는 멸치, 까나리, 실치, 김이 많이 나온다.
- ◇ 중미 : 당산 위쪽의 낮은 구릉지대에 있는 산이다. 들 가운데 있는 산이라 해서 붙여진 이름으로, 주변에 천수답을 비롯한 넓은 들이 펼쳐져 있다.
- ◇ 청달산 : 섬의 북동쪽에 있는 산이다. 해송이 우거진 산이라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장고도에서 마을이 처음 있었던 곳으로 알려져 있다. 가장 오래 된 조개무지(패총)가 있다.
- ◇ 큰당산 : 장곰 마을 북동쪽에 있는 청달산 남서쪽에 자리한 산이다. 옛날에 당제를 지냈는데, 먼저 당집이 있었던 산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 큰대말 : 북쪽 선착장이 있는 지명이다. 이곳에는 막이 몇 채 있는데, 고기잡이철에 어부들이 머무르다 가는 곳이라 한다.
- ◇ 큰당산뒷들 : 큰당산 뒤쪽에 작게 펼쳐진 들이다. 들의 한복판에 있는 가운데 방죽을 중심으로 펼쳐져 있다. 일명 큰당산뒤라고 부른다.
- ◇ 토끼고랑 : 섬 북동쪽 있는 청달산 북쪽에서 바다로 이어지는 큰고랑을 말한다. 비탈진 산에 낮은 숲이 우거져 토끼가 살만한 고랑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해막이 : 큰대머리 북쪽에 있는 지명이다. 옛날 출산이 가까운 임산부가 당제 지내는 동안 머무르던 곳이다.<사진-2>



〈사진-1〉 장고도 당집



〈사진-2〉 장고도 해막



등 바 루 놀 이

제1절 충청도서지역 등바루놀이 개관(概觀)⁸⁾

1. 등바루놀이의 목적

서해 도서지역에서는 자연환경에 따른 생업과 관련하여 대부분의 해변마을에서 등바루놀이를 놀이를 행하였다.

이 놀이는 놀이의 목적(目的)에 따라 간월도, 안면도의 풍어를 기원하며 굴 채취에 비중을 둔 놀이와 장고도와 태안군 고남면의 놀기위한 놀이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목적이나 방법에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굴을 채취하는 과정과 놀이가 병행된다는 점에서는 그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여러 도서지역에서 전승되던 놀이는 오랜 세월을 거쳐오는 동안 사회적 변화에 따라 대부분 섬에서 사라지고 지금은 보령시 오천면 장고도에서만 힘들게 전해지며 그 명맥(命脈)을 이어가고 있다.

2. 놀이 시기(時期)

등바루놀이가 열리는 시기는 대체로 비슷하나 섬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다.

장고도에서는 해마다 그 해의 첫 고기잡이인 연평도 조기잡이가 끝나고, 해당화가 만발하는 음력 사월 스무 이레나 스무 여드레에 행하였고 간월도, 안면도에서는 음력 3월이나 4월초부터 시작하여 3-4일 동안 여러 번 놀이를 하였다. 또 고대도에서는 굴이 가장 크고 맛이 좋은 음력 4월에 놀이를 하였으며, 태안군 고남면에서는 풋콩이 나올 때인 9월 초순경에 날을 잡아 이틀동안 하였다.

8) 이필영, 『생활문화』, <島嶼誌> 中, (대전: 忠淸南道, 1997), 491~493. 再構成.

3. 놀이 장소(場所)

등바루놀이는 굴을 채취하는 과정과 놀이가 병행되어 이루어졌기 때문에 대부분 굴채취가 용이한 가까운 갯벌에서 행해졌으며 다만 섬마다 그 지명이 다를 뿐이다.

우선 장고도에서는 마을의 동북쪽 명장섬 앞에 있는 장벌⁹⁾에서, 간월도에서는 주로 인근에 있는 가운뎃섬¹⁰⁾과 개섬¹¹⁾, 띠섬¹²⁾을 차례로 다니며, 고대도에서는 뽕부여의 벌로, 안면도에서는 인근에 있는 해변이나 무인도에 배를 타고 가서, 태안군 고남면에서는 모래장벌로 가서 각각놀이를 하였다.

4. 놀이 참가 대상자

이 놀이는 대체적으로 15세 전후의 소녀들이 행하였지만 이 또한 조금씩은 차이가 있다. 장고도에서는 소(小)처녀, 중(中)처녀, 노(老)처녀로 구분하던 1960년 말까지만 해도, 등바루놀이를 행하는 대상은 대부분 초조(初潮)를 겪은 15세 이상의 처녀들이었다. 당시 15세가 되면 가사나 농사뿐 아니라 해삼이나 전복 등의 해산물 채취도 맡았으므로, 소처녀들이 놀이의 주된 대상자였다. 그러나 그 후로 세월이 흐르면서 대개 18~19세 처녀들이 행하였다. 고대도와, 태안군 고남면에서는 나이는 보통 15~18세 가량이며 시집을 가지 않은 처녀들이 놀이를 하였으며, 간월도에서는 아주머니들이 주축이 되어 놀이를 하였다.

9)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대머리’가기 전에 위치한 뒤편 바닷가.

10) 웅동할매가 살던 섬이라고 하며, 웅동할매가 쪼신을 신고 지나가다가 어떤 곳이 움푹 패여 생긴 동굴이 실재 이곳에 있다고 함. 비가 올 경우, 이 섬에 가서 동굴 안에서 등바루놀이를 하면 비를 피할 수 있어서 좋았다고 함.

11) ‘서당섬’ 이라고도 부름.

12) 세 섬 중에서 가장 큰 섬을 말함.

5. 각 도서의 등바루놀이

■ 간월도

조금에 바닷물이 빠져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아침 일찍, 점심식사를 미리 챙겨서 등바루놀이를 할 섬에 간다. 그 꼭대기에 싸온 도시락을 두고 다시 내려와 굴을 따기 시작한다. 평소에는 조새로 굴을 따면서 동시에 껍질까지 벗기는 작업을 하지만, 등바루를 할 때는 굴 따는 작업과 굴 껍질 벗기는 작업을 따로따로 한다. 이것은 바닷물이 다시 차기 전에 멀리까지 나가서 보다 많은 양의 굴을 따오기 위해서다. 이때 여럿이 함께 굴을 따면서 내기를 하거나, 노래를 부르기도 한다. 이렇게 하루종일 일을 하면서 놀고 저녁 늦게 서야 집으로 돌아온다.

■ 고대도

첫날, 처녀들(30~40명)이 갯벌에 가서 ‘버케’¹³⁾를 따서 뱀부여의 벌에 모아 두었다. 뱀부여에는 돌이 많아서 앉아서 놀기에 편했다. 이튿날 아침 일찍, 도시락을 마련해 다시 뱀부여로 가서 전 날 미리 따다 놓았던 버케를 까면서 놀았다. 버케 까는 일이 끝나고 해가 떨어지면 집으로 돌아왔다. 사흘째 되는 날, 처녀들은 좋은 옷을 입고 다시 모여서 한바탕 신명나게 놀았다. 명석놀이도 하고 까그매, 까치 놀이를 불러가며 해가 지도록 실컷 놀았다. 이 때 어린아이들이 구경할 수 있었다. 그러다가 등바루 용왕제 둥벙¹⁴⁾에 가서 백지에 밥을 싸서 바다에 던지며 용왕제를 지내기도 했었다. 193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등바루놀이는 해변가마을 어디에서나 볼 수 있었다.

13) ‘까치 앉은 굴’을 일컫는 말.

14) ‘등바루 둥벙’이라고도 부름.

■ 원산도

원산도에서 장고도로 시집 온 주민(한순자, 69세)의 제보에 의하면 “명확하게 등바루놀이라 부르지는 않았다. 그렇지만 원산도에서도 장고도와 비슷하게 ‘굴캐기’, ‘쭈방넘기’, ‘까그매’놀이를 하면서 하던 놀이가 있었다”고 한다.

■ 태안군 고남면 고장마을

등바루놀이를 할 날이 잡히면 이틀 전에, 처녀들은 분홍저고리와 남치마를 만들어 단체복을 준비한다. 놀이 전날이 되면 손으로 만들 수 있는 음식을 모두 장만한다. 이윽고 놀이를 하는 당일이 되면, 30~40명의 처녀들은 준비해 놓은 옷을 곱게 차려입고, 장만해둔 음식을 들고 청춘가를 부르며 모래 장별로 달려나간다. 장별에 도착하면 모래로 각자 집을 짓는데, 이 집은 정식의 집이 아니라 자신의 자리를 구분하기 위한 집이다. 이어 갯벌에 나가 ‘버케’를 따다가 자신의 모래집에 모아 놓는다. 그런 후 각자 모래집에 앉아 화장을 하고 나서 다시 모인다. 모인 처녀들 중에서 소리를 잘하고 똑똑한 처녀 한 명을 뽑아 놀이를 주도하도록 한다.

이어서 한 곳에 밥을 차려 놓고 용왕제를 지내는데, 이를 ‘용왕 한다’고 표현한다. 이것은 물 속에서 가장 높은 신인 용왕에게 ‘갯것’을 잘 하도록¹⁵⁾ 도와달라고 기원하는 것이다. 뽑힌 한 명의 처녀가 백지에 음식을 싸서 뭐라고 비손 하면서 바다에 던진다. 이 때 백지에 쓴 것을 ‘짐’이라고 부른다. 그러면 옆에 있던 처녀들은 여러 번 절을 하면서 비손 한다.

이렇게 용왕제를 지낸 후, 이장님 집에서 물래 가져온 풍물을 치며 한바탕 신나게 논다. 한참을 놀다가 해가 질 무렵이 되면 캐다 놓은 버케를 까기 시작한다. 일을 하다가 졸음이 오면 다시 풍물을 치며 노는데, 이것을 ‘쳐 부셔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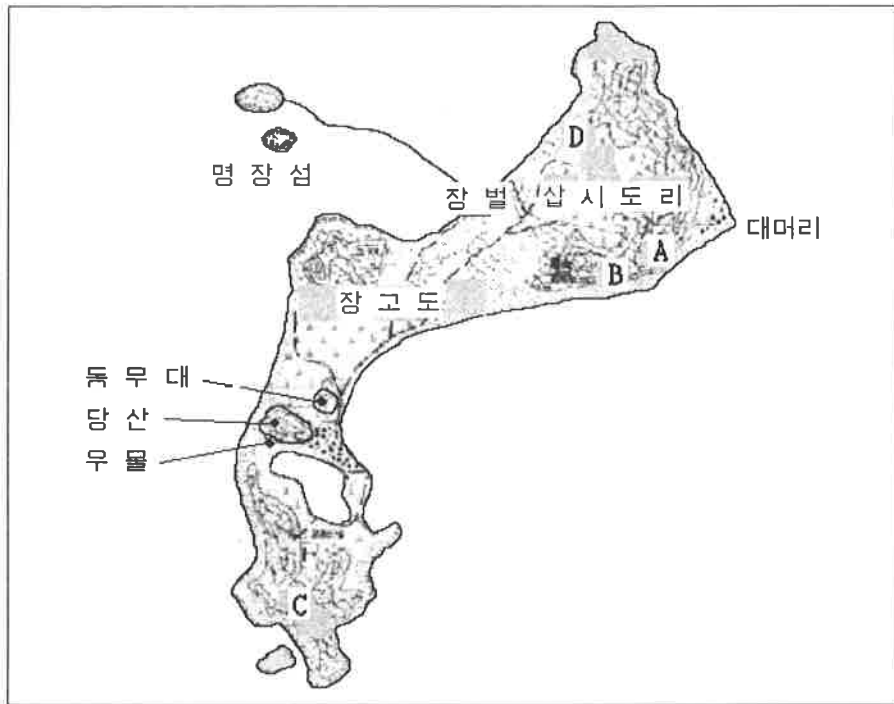
15) 해물채취를 잘 하도록.

다'고 표현한다. 또 모인 처녀들이 두 패로 갈라서서 번갈아 가며 외친다. 한 쪽에서 “굴아, 조개야.”라고 외치면 다른 쪽에서 이를 받아 역시 “굴아, 조개야.”라고 외친다. 이어 모래를 집어서 바다를 향해서 던진다. 이렇게 하면 그 이듬해에 굴과 조개가 많아진다고 여기는 믿음에서 이다.

■ 태안군 고남면 웃점마을

이곳은 어찌나 굴이 많은지 바위에 붙은 굴을 쪼기보다는 버케를 긁어다가 물이 들어오지(‘찌지’) 않는 곳에 옮겨 놓은 후 그 곳에서 하루종일 굴을 깎을 정도였다고 한다.

제2절 장고도의 등바루놀이



〈지도-2〉 장고도

1. 등바루놀이 목적

소녀들의 굴캐기 작업과 성년식에서 유래(由來)한 등바루놀이는 충청남도 서해안 도서지역에서 210여년 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민속놀이로 지금은 모습들이 거의 사라지고 단지 보령시 오천면 장고도에서만 힘들게 전승되며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장고도에서 전해지는 이 놀이는 1980년 제주도에서 개최되었던 ‘제 21회 전국민속예술 경연대회’에 참가한 바 있고, 지역 문화행사인 ‘만세보령문화제’에

도 다수 참여한 바 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많은 부분의 각색(脚色)되고 말았다. 즉, 내용이 변형되었거나 새로운 것이 삽입(插入)된 것이다.

최근에도 놀이는 각색된 내용으로 전승되고 있고, 많은 문헌(文獻)들도 그 내용으로 장고도 등바루놀이를 표현하고 소개하고 있다.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 이 놀이의 목적을 규명한다는 것은 매우 조심스럽고 위험한 일이다. 그러나 필자는 여기서 여러 자료를 토대로 필자의 견해를 밝히려 한다.

등바루놀이의 목적과 관련한 기록을 살펴보면 한남대학교충청문화연구소·충청남도(1997)에서는

『굴이 많이 나는 시기인 봄, 특히 갯물이 멀리까지 많이 빠져나가 굴채취가 쉬운 ‘조금’에 이 놀이를 함으로써 일의 능률도 높였다(간월도, 안면도, 장고도). 굴채취보다는 오히려 놀이에 더 비중을 두기도 했다(태안군 고남면 고장).』

고 기록하고 있고 윤원석(1997)에서는

『원래의 ‘등바루’ 목적과는 크게 다른 뜻을 지니게 되었다. 즉 이곳 노인들의 말에 의하면 자기들 시절의 ‘등바루’는 어물채취가 주였고 놀이는 부차적(副次的)인 것이었는데 현재는 그와 반대로 되었다면서 아쉬워하는 표정을 감추지 못한다.』

라고 기록하고 있다. 즉 이 놀이의 목적을 ‘굴캐기’에 두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필자는 여러 가지 자료들을 종합해 보았을 때 등불써기놀이의 목적은 ‘놀이 위한 놀이’다. 라고 조심스럽게 결론을 내렸고 이에 관련한 근거자료들을 살펴보면

첫째, 한남대학교충청문화연구소·충청남도(1997)에 나타난 기록처럼 굴캐기

에 비중을 두고, 갯물이 많이 빠져나가는 시기에 하였다면 시기는 ‘조금’이 아니라 ‘사리’였을 것이다.

둘째, 윤원석(1997)에 나타난 기록 중에서 “노동 의욕을 북돋아 주고 주민간의 결속을 강화(強化)하며 일년 내내 바다나 바라보며 섬 안에 갇혀 살아가야 하는 처녀들의 기분을 활짝 풀어주는 이 놀이”다 라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서도 놀이의 목적이 “굴캐기” 보다는 “기분을 활짝 풀어주는 놀이”에 비중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장고도 출신자(편수범, 41세)에 의하면 “예전에 섬에서는 해가 떨어지면 어린 소녀들은 문밖출입을 제 맘대로 하지 못 하였고, 또 일년 내내 바다나 바라보며 섬에 갇혀 살아야 하는 고충이 있었는데 등바루놀이는 이런 소녀들의 기분을 풀어주던 놀이라 전해들었다.”고 한다.

넷째, 장고도 주민(하상기, 74세)은 “지금도 그렇지만 예전에도 ‘사리’때에나 작업하러 나가지 ‘조금’에는 물이 많이 쓰지 않기 때문에 갯가에 잘 나가지 않았다.”고 하며, 앞에서 언급한 ‘놀이의 시기’에서도 “조금에는 작업을 하지 않아 일손이 한가해서”라는 내용을 통해서도 굴캐기에는 큰 비중이 없었음을 알 수가 있다.

다섯째, 1930년대와 1940년대에 놀이에 참가했던 주민들(편월분, 81세, 편명예, 80세)에 의하면 “옛날 등바루놀이에서는 굴을 캐 때 시합 같은 것은 없었다. 조금이기 때문에 물이 별로 안써 잠깐 정도 굴을 캐고 하루종일 먹고 놀고, 먹고 놀고 하며 노래나 하고 놀기만 했지 굴을 많이 캐려고 하지는 않았다.”고 전한다.

여섯째, 굴캐기나 풍어제와 관련한 1980년 이전의 기록은 찾아볼 수 없고 우리나라 청소년 민속놀이의 특징 중에 나타나는 것처럼 노는 내용만이 전해질 뿐이다. 다만 있다면 1980년 경연대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이

것은 관(官)이나 행사를 담당하던 책임자들이 인위적으로 체계화한 기록에 불과하다.

2. 유래 및 어원(語源)

등바루놀이는 15세 전후의 어린 소녀들이 행하는 놀이다. 때문에 이 놀이는 유래나 어원에 대한 관심 없이 그저 한 세대, 두 세대 세대를 건너오며 놀이만이 전해 내려왔다. 때문에 장고도 주민들도 그것에 대하여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문헌(文獻)으로 전해지는 유래와 어원을 살펴보면 대천문화원(1997)에서는

『섬처녀들의 어물채취로부터 유래(由來)한 유희라 할 수 있다.』, “일부 농담(弄談)을 즐기는 주민들 사이에서는 ‘등바루’가 『등(登)을 바르게』란 의미가 있어 이는 성인이 되어서 누구나 가져야 할 성교(性交)의 자세(姿勢)를 가다듬는 뜻이 있을 법하다는 이야기가 오고갈 뿐이다.』

와 같이 기록하고 있고 보령군(1983)과 한국민속사전 편찬위원회(1998), 崔京哲(2000)에서는

『장고도에서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처녀들의 놀이로서 어물채취 경연을 겸한 일종의 규수제라 할 수 있다.』

라고 기록하고 있으며 保寧郡誌 編纂委員會(1991)와 대천문화원(1996)에서는

『‘등바루’의 어원은 정확하지 않으나 ‘등불을 밝힌다’는 말과 ‘등불을 켜두고 마중 나온다’는 말이 병행된 준말이라고 한다.』

라고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이 또한 장고도 주민들의 고증을 근거로 할 때 1980년 경연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 등불과 관련시켜 새롭게 정의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많은 민속놀이가 그렇듯이 장고도 등바루놀이 역시 유래나 어원을 말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다만 1940년 이전에 놀이에 참가했던 주민들의 구술과 도서지역 등바루놀이에 관한 기록들을 종합해 볼 때 등바루놀이는

“서해 도서지역 소녀들의 굴캐기 작업과 성년식에서 유래한 놀이다.”라고 추측하여 정리할 수 있다.

3. 놀이 시기(時期)

등바루놀이가 열리는 시기는 대체로 섬마다 비슷한데 예전 장고도에서는 음력 사월 스무 이레 날 또는 스무 여드레 날(물때가 스메인 날) 놀이가 열렸다.

장고도의 놀이는 대부분 문헌에서 음력 3월 하순과 4월 상순사이의 ‘조금’ 즉 사월 초파일을 즈음하여 행해지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1930년대에 놀이에 참가했던 주민(편월분, 81세)과 1950년대 연평도 조기잡이를 다녔던 주민(남운균, 69세)의 구술을 종합해 볼 때 음력 사월 스무 이레 날 또는 스무 여드레 날(물때가 스메인 날) 놀이가 열렸음을 알 수 있다. 주민들의 구술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장고도 아버지들의 ‘연평도 조기잡이’ 이후에 ‘등바루놀이’를 하였다. 우선 장고도에서 고기잡이를 나가는 시기 순서로 장소와 더불어 살펴보면 흑산도 한식사리, 格列飛列島 고우사리, 연평도 입하사리와 소만사리가 있는데 이 중에서 등바루놀이에 쓰이는 광어는 대부분 연평도 소만사리에서 많이 잡혔고, 또 이때는 흑산도나 격열비열도(格

列飛列島)에 비하여 고기잡이 규모가 커서 옛날 같으면 돈을 가마니에 담아왔는데 때문에 놀이에 쓰이는 음식을 충분히 장만 할 수가 있었다.

둘째 등바루놀이는 해당화꽃이 만발하는 시기에 행해졌다. 장고도에 서 해당화는 보통 음력 삼월 말이나 사월 초에 개화를 시작하여 사월 중순 이후에는 만발하는데 이것으로 놀이에서 사용하는 돌방을 꾸몄다.

셋째 놀이는 ‘조금’에 하였다. 이때는 ‘사리’때에 비하여 비교적 일손이 한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근래에는 소녀들이 학업이나 취업문제로 대부분 외지에 나가 있어, 모두 모일수 일 수 있는 공휴일을 택하여 놀이를 하다보니 사월 초파일에 놀이를 하고 있다.』

4. 놀이 장소(場所)

등바루놀이를 행하는 곳에서는 대부분 굴을 캐기가 용이한 굴 밭 주변의 해변을 택하여 놀이를 행하였는데 장고도 역시 굴을 캐기가 용이한 마을과 마을 동북쪽으로 약 2km 떨어져 있는 명장섬의 중간 지점에 있는 장벌에서 놀이를 하였다. 이곳을 택하게 된 것에는 이밖에도 몇 가지 이유가 더 있다. 우선 “장고도에서는 굴을 캐는 장소가 물때에 따라 달랐다. 물이 많이 빠지는 ‘사리’에는 주로 부대 넘어 투너나 진녀·비파녀·서구지 등에서 굴을 캐고, 물이 적게 빠지는 ‘조금’에는 명장섬 주변의 굴 밭에서 굴을 캐다(남운균, 69세)”. 또한 길게 늘어선 백사장은 놀이하기에 충분했고, 명장섬 주변에는 돌방을 쌓는데 필요한 돌이 많았으며, 놀이가 열리는 시기가 되면 주변 산이 온통 붉은 색으로 물들만큼 해당화꽃이 가득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장고도에서는 이곳을 택하여 놀이를 하였던 것이다.

해당화가 많았던 장고도는 최근들어 해당화 뿌리가 당뇨병 치료에 좋다고

하여 그 뿌리를 외지인들이 들어와 많이 캐가면서 전에 비해 그 수가 많이 줄어들었다.

5. 놀이 참가 대상자

처녀들을 소(小)처녀, 중(中)처녀, 노(老)처녀로 구분하던 1960년대 말까지만 해도, 등바루놀이를 행하는 대상은 대부분 초조(初潮)를 겪은 15세 이상의 소녀들이었다. 당시 15세가 되면 가사나 농사뿐만 아니라 해삼이나 전복 등의 해산물 채취도 맡아서 하였기 때문에 소녀들이 놀이의 주된 대상자였다. 그러나 이후로 시간이 흐름에 따라 대개 18~19세의 처녀들이 행하였다¹⁶⁾가 1980년에는 아주머니들도 놀이에 참여했고, 1992년에는 동네 아주머니들이 놀이의 주된 대상자가 되어 놀이를 행하기도 했다.

6. 장고도 등바루놀이 특징(特徵)

장고도의 등바루놀이는 여러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등바루놀이는 참가할 수 있는 대상이 엄격하게 선별된다. 즉 성별(性別)과 혼례(婚禮), 초경(初經) 등에 관한 여러 가지 기준이 있어 그 기준에서 벗어난 사람은 놀이에 참가하지 못하였다.

둘째, 성인의 노동(勞動)이 필요한 놀이다. 우선 놀이를 위하여 아버지들은 고기 잡이에서 광어를 잡아 그것을 배에서 말려 집으로 가져왔으며, 어머니나 언니들은 놀이가 열리기 며칠 전부터 풍성한 음식을 준비하여 잔치를 베풀어주었다.

16) 이필영, 『생활문화』, <島嶼誌>中, (대전 : 忠淸南道, 1997), 491.

셋째, 여성(女性)들만의 놀이다. 장고도의 등바루놀이는 보통 행해지는 여성들 놀이와는 또 달리 놀이장소 주변까지도 남성들의 출입이 제한되었던 놀이다. 이것에 관하여 장고도 주민(편명순, 74세)은 “1950년대만 하여도 장고도에서 쌀밥을 먹을 수 있는 날은 등바루놀이가 열리는 날 밖에는 없었다. 그러나 이 놀이에서는 남자들을 오지 못하게 하였기 때문에 남자들이 뺨을 가지고가 소녀들을 쫓아낸 다음에 음식을 훔쳐먹기도 했다”고 전한다.

넷째, ‘놀이 위한 놀이’와 ‘굴 캐기’가 병행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제3절 장고도에서 행하여진 등바루놀이

1. 진행과정

1980년 이전 장고도 등바루놀이의 진행과정은 ①돌방만들기→②굴캐기→③돌방꾸미기와 의상 갈아입기→④아침식사→⑤여흥→⑥귀로의 순으로 진행되었으나, 여기서는 1980년 이후의 진행과정인 ①굴부르기 →②돌방만들기→③돌방꾸미기 및 의상 갈아입기→④굴캐기 경연→⑤큰아씨 뽑기→⑥식사→⑦여흥→⑧귀로의 과정을 중심으로 그 진행 모습을 서술하고자 한다.

가. 굴부르기

해마다 음력 정월대보름 밤이 되면 마을 부녀자들이 모두 나와 ‘굴부르기’를 한다. 한 손에는 굴밥을 담은 굴바구니<사진-3>를 들고 또 한 손에는 등을 들어 주변을 흰하게 밝히면서 소리 높여 등타령<악보-1>을 부르면서

● 등타령<악보-1> ●



명잠섬 주변에 널려 있는 굴 밭으로 가<사진-4>, 굴부르기 노래<악보-2>를 부르면서 굴바위에 굴밥을 준 뒤, 굴을 불러모으는 놀이를 한다.

● 굴부르기 노래<악보-2> ●



그러나 예전에는 등바루놀이가 열리는 날 굴 부르기를 행하지는 않았다. 이것은 1980년 경연대회에 참가할 때 내용이 각색되는 과정에서 삽입된 것으로 풍어제의 성격을 의도적으로 넣고자 한 부분으로 추측된다.

여기에서 불리던 ‘등타령’ 역시 장고도 소년들이 ‘등불써기놀이’란 민속놀이

에서 부르는 노래이며, ‘굴부르기 노래’ 또한 1980년에 경연대회 참가를 위해 창작된 것이다.

‘굴부르기’는 1992년에 행한 놀이에서도 불려졌었다.

나. 돌방만들기

돌방은 놀이가 열리기 전날 명장섬<사진-5> 앞 장벌<사진-6>에서 소녀들이 삼태기<사진-7>와 호미를 들고 나와 만든다.

이 돌방은 놀이를 하는 날 처녀들이 화장을 하거나 옷을 갈아입는 장소로 쓰인다. 즉 이른 아침에 치장을 하지 않고 간편한 작업복 치림으로 ‘쿨 케기’를 한 소녀들이 그 작업이 끝나면 세면을 한 후 돌방에 들어가 화장을 하거나 의상을 갈아입는다.

돌방을 만드는데 필요한 돌은 놀이터에서 약 1km 떨어져 있는 명장섬 주변의 자갈밭에서, 넓적한 돌을 골라 삼태기에 담아, 그것을 머리에 이거나 들어 날라서 사용한다.

이 작업은 소녀들이 가냘픈 손으로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서 직접 만들었는데 우선 큰돌을 쌓은 뒤 작은 돌로 빈곳을 채우거나 쌓는 방법으로 만든다.<사진-8>

돌방 모양은 <사진-9>과 같이 둥근 타원형이며, 규모를 살펴보면 우선 지름이 2-3m정도이며, 높이는 외관상 드러난 것은 대략 1m 30cm 이지만 처녀들이 옷을 갈아입을 때 밖에서 보이지 않도록 땅을 깊이 판 후 돌을 쌓았기 때문에 실제 높이는 약 2m 가량이나 된다. 담의 두께는 보통 50여cm 정도고, 돌방 안 공간<사진-10>은 190cm 내외다. 만드는 방법을 구조와 더불어 살펴보면 우선 백사장 방향으로 출입이 용이하도록 1m정도의 출입구를 만들고, 바닥은 주워온 조약돌을 깔아 정성스레 고른 다음, 그 위는 고운 모래를 펴서

판판하게 한다. 방 안 좌측 안쪽에는 가져온 의상이나 치장도구를 올려놓는데 이용되는 ‘부뚜막’ 또는 ‘조왕’ 이라 불리는 높이가 대략 20-30cm 정도인 모래로 쌓은 낮은 단을 만든다. 예전에는 방안 우측에도 단을 만들었는데 그 위에는 밥이 담긴 솥을 바구니에 담아 올려놓았다.

온종일 20-30kg정도의 돌을 날라서, 그것을 쌓아 돌방을 만드는 작업이 15세 처녀들에게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그들은 내일이라는 기다렸던 날이 있었기에 힘든 것도 잊은 채 모두들 열심히 돌을 날라다 돌방을 만든다. 이 돌방만들기는 온종일이 지나고, 해가 수평선 가까이 내려와서야 끝이 난다.

돌방은 예전에 즉 소(小)처녀와 노(老)처녀로 나누었을 당시만 해도 두 개가 사용되었다. 노처녀들이 사용하는 큰 돌방과 그 옆에 어린 처녀들이 사용하는 작은 돌방을 만들어 사용했는데 그것은 당시 인원이 많아서 그랬던 것은 아니고 처녀들간에 나이 차가 많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후에 처녀들의 수가 줄어들면서 한 개만 사용했는데, 1980년 이후 놀이 내용에 굴캐기 경연이 삽입되면서 두 편으로 나누기 위해 다시 두 개를 만들어 사용하였다.

만들어 놓은 돌방은 놀이를 하는 날 소녀들이 실컷 놀고 난 후 날이 어둑어둑 해지면 허물고 이듬해에 새로 쌓아 사용을 한다.

1980년 이후에 나타난 특징이라면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놀이 내용에 굴캐기 경연이 삽입되면서 두 편으로 편을 나누기 위해 두 개의 돌방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는 것과, 돌을 나르는 과정에서는 창작되어 삽입된 등바루 노래<악보-3>를 부르면서 돌을 나르고 있는 점이다.

또한 근래 들어 소녀들의 수가 점점 줄어들면서 돌방을 완전히 허물지는 않고 일부만 허물은 다음 그대로 두었다가, 이듬해에는 부서진 부분만 보수하여 사용하고 있다.

㉠ 등 바 루 노 래 <악보-3> ㉠

받는 부분



메기는 부분



받는 부분

어 허 야 에루아- 좋 아

메기는 부분

우-리-네 명--장섬- 경치도 좋구요

비-파-여 진--여-- 조개도 많고요

대-머-리 어--장-- 고기도 많고요

천-년-을 하루-같이- 서있는 여-는

어엽하-는 장고-도에- 상징-이란다

용난바-위 명장-섬에- 경사가 났-네

장- 고-- 초--연에- 풍악이 울리네

해-마-다 풍악-이룬- 소슬-였지만
 삼십육-관 동그-라미- 박통을 지-어
 생- 황-금 굴러-굴러- 걸이지 않-네

 다섯바-위 나--란히- 널려- 있는곳
 파-란-물 바람-소리- 차례로 울-려
 저에물-힌 옛-- 노래- 구슬- 프구나

 등바루-는 우리-마을- 명절-이라네

다. 굴캐기

놀이가 있는 날은 날이 밝기도 전에 소녀들이 ‘굴 바구니’와 ‘조새<사진-11>’를 가지고 명장섬 주변에 있는 굴 밭으로 모두 나와 ‘굴캐기<사진-12>’를 한다.

이 작업은 오래하지 않고 대략 한 시간 정도 했으며 채취한 굴은 굴 바구니에 담아서 놀이가 열리는 명장섬 앞 백사장으로 가져온 후 굴 바구니를 넣을 수 있는 웅덩이를 파서, 햇빛에 굴이 상하지 않도록 보관해 두었다가 그들의 어머니와 언니들이 밥을 가지고 왔다가 돌아갈 때 그들 편에 집으로 보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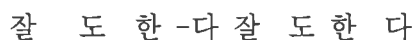
한편 굴캐기에 대하여 장고도 주민(편월분. 81세)은 “1950년대 이전에는 굴을 보통 3~4일 동안 조금씩 계속 캐서, 백사장에 웅덩이를 판 후 굴 바구니의 뚜껑을 덮어 그곳에 보관하다가 놀이 날이 되면 집으로 돌려보냈다.”고 한다.

1980년 굴캐기는 그 내용이 많이 달라졌다.

첫째 소녀들에 대한 가족들의 배려가 예전에 비교하여 많이 줄어들었다. 즉 1980년 이전에는 어머니, 언니가 밥을 가져올 때 의상과 세숫물도 같이 가져

둘째 이전까지는 굴캐기가 ‘조금’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캔 굴의 양이 많지 않았고 시간도 길지 않아서 ‘시합’이나 ‘경연’ 따위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1980년 굴캐기에서는 굴을 비롯한 해산물을 많이 캐거나 가장큰 것을 채취하는 ‘시합’이나 ‘경연’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작업 시간도 자연 길어져 오전 내내로 길어졌다.

● 굴캐기 노래<악보-4> ●



조 개 잡 -이 잘 도 한 다

어 제 -도 여 에 살 고

내 일 - 도 여 에 사 네

바 삭 바 -삭 잘 도 까 네
 여 왕 탄 -생 누 구 일 까
 해 - 당 -화 만 발 하 고
 오 - 늘 -도 등 바 루 날

 용 난 바 -위 경 사 났 네
 얼 - 시 -구 좋 을 시 고

마지막으로 이런 모든 과정이 1980년 이전까지는 누가 나서서 명확하게 지시를 하여 이루어 졌던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1980년에는 지난해 큰아씨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이전에는 “소녀들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이 놀이를 주도했었다.”라고는 전한다.

라. 큰아씨 뽑기

굴을 비롯하여 해산물을 채취하고 나면 그 껍질을 벗겨 각각의 편에서 ‘누가 가장 많은 양을 채취’했으며, 또 ‘가장 큰 것을 채취’했나를 가리고, 각 편에서 채취한 해물은 모두 합하여 ‘어느 편이 이겼나’를 가린다. 그런 후에 이긴 편에서 성적이 가장 우수한 사람을 뽑아 그 해의 ‘큰아씨’<사진-13>라 부르며, 두 편 모두 이 사람을 축하를 해주고, 이 날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준다.

그러나 ‘큰아씨뽑기’ 역시 1980년 이전에는 없었던 내용을 새로 삽입한 것이다. 또한 대부분 문헌에서 명칭을 ‘여왕’ 또는 ‘왕관녀’라 사용하고 있는데 장고도 주민(편제환, 64세)에 의하면 “예전에는 ‘여왕’이나 ‘왕관녀’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았다. 명칭을 붙인다면 ‘큰아씨’나 ‘큰언니’가 옳을 것이다.”라고 전한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큰아씨’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

마. 돌방꾸미기와 의상 갈아입기

여름 해변가에서 아침 이슬 듬뿍 머금고 바다를 향해 피어있는 해당화는 이미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아낙네처럼 애처롭게 보이는 꽃이다.¹⁷⁾ 굴캐기가 끝나면 소녀들은 주변 산으로가 해당화를 꺾어 돌방을 꾸미기 시작한다.

놀이가 열리는 시기가 되면 명장섬 주변의 산은 온통 해당화¹⁸⁾ 꽃<사진-14, 사진-15>으로 붉게 물든다. 소녀들은 산으로 가 꽃을 한 송이 한 송이 각각 따서 꼬시나무의 기다란 가시에 꽃받침통<사진-16>을 꽃아 꽃다발을 만든다. 꽃다발을 만든 소녀들은 그것을 돌방에 가지고 와서 돌방을 꾸미는데 우선 담밖은 돌 틈새에 가지를 꽃아 장식을 하고, 지붕이라 할 수 있는 위 부분은 대나무 같은 나무 가지를 걸쳐놓은 후 그 위에 해당화 꽃다발을 덮어 장식<사진-17>을 한다. 돌방 안은 구석구석 꽃가지를 꽃아 장식하며, 돌방 안에 있는 단은 물일을 할 때 쓰이는 유리 어항을 올려놓은 후 “해당화꽃을 꽃아 장식<사진-18>을 한다”¹⁹⁾.

돌방꾸미기가 끝나갈 즈음에는 한 집, 두 집 소녀들의 가정에서는 어머니와 언니들이 밥 광주리를 이고 놀이터에 모인다. 이때에는 세숫물과 의상보따리도 가져오는데 소녀들은 그것으로 세수를 한 후 정성껏 만들어놓은 돌방에 들어가 의상을 갈아입고 식사를 준비한다.

여기에서 의상은 대부분 어머니나 언니가 입던 것을 빌려서 입는다.

17) 김태정,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 꽃 백 가지』, 10쇄 (서울: 현암사, 1994), 139.

18) “해당화는 그 이름만 들어도 섬 지역 바닷가가 연상될 만큼 ‘여름 해변가의 아름다운 꽃’으로 꼽히고 있다. “우리 나라 중부 및 북부 지방의 바닷가 모래땅에서 흔히 무리를 지어 자라는 장미과의 낙엽 활엽 관목이다.

높이는 1.5미터 정도이며 줄기는 여러 개로 갈라지는데 가시가 많이 나있으며 가시에는 융모(絨毛)가 있다. 5-7월에 붉은색 꽃이 피는데 지름이 6-9cm 정도이고 꽃받침통은 둥글고 털이 없다.”

김태정,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 꽃 백 가지』, 10쇄 (서울: 현암사, 1994), 136~137.

19) ‘조왕을 논다’고 표현함.

바. 식 사

의상을 한복으로 곱게 갈아입은 규수들은 이제부터 갖가지 음식을 맛볼 수 있는 만찬을 시작한다. 등불써기놀이에서의 식사는 보통 9~10시경 시작되어 중간 중간에 여흥을 즐기면서 오후까지 계속된다.

어머니와 언니들이 가져온 큰 광주리<사진-19> 안에는 찹쌀, 팥, 수수 등 여러 가지 잡곡으로 섞어 지은 기름진 밥이 지금의 밥통과 같은 모양을 한 대나무로 만든 그릇에 담겨져 있고, 엿이나 과자 등을 비롯한 흔하지 않은 음식도 있었으며, 한쪽에는 반드시 광어²⁰⁾<사진-20>찜 요리가 놓여 있다.

이렇듯 가정에서 최대한 정성을 들여 가져온 많고 귀한 음식은 가장 먼저 찾아온 집의 밥부터 어머니, 언니들과 둥그렇게 둘러앉아서 나누어 먹는다. 여기에서 때로는 “다른 집 보다 밥을 늦게 가져오면 울기도 했다.”(편월분, 81세)고 한다.

가정에서 준비한 음식은 정말로 많은 양이었다. 보통 아침식사를 할 때는 소녀들과 어머니, 언니들만 하였지만, 점심식사에서는 구경나온 모든 구경꾼에게도 식사를 제공하였다. 마치 마을 전체의 잔치처럼 말이다.

그러나 이렇게 정성스레 음식을 마련하여 소녀들에게 그런 자리를 만들어준 까닭은 전해지지 않고 있어 안타까울 뿐이다.

식사 중 찬에 들어있는 광어에 대해 살펴보면, 1950년대 당시 고기잡이를 다녔던 장고도 주민은(남운균, 69세) “해마다 연평도 조기잡이를 나가면 두 번째 ‘사리’인 소만 사리 때에 잡어로 많이 잡혔는데, 이것은 잡아서 가져와도 당시

20) “넙치라고 불리는 광어는 경골어류 가자미목 넙치과의 바닷물고기. 몸길이는 60정도이다. 몸은 장타원형으로 눈이 좌측에 있다. 몸 빛깔은 눈이 있는 쪽은 유백색의 원형 반문(斑紋)이 산재하며, 눈이 없는 쪽은 백색이고, 꼬리자루와 각 지느러미의 측면은 주로 등황색을 띤다. 한국·일본·남중국해에 분포한다.”
學園出版公社事典編纂局, 『學園世界大白科事典』, 25卷, (서울: 學園出版公社, 1994), 266.

에는 팔리지 않았기 때문에 배에서 말려서 가져왔다.”고 한다. 그러나 이런 광어가 아무리 가정형편이 어렵더라도 놀이에서는 찬으로 꼭 가져와야 하는 필수품이었으며, 심지어 이를 구하지 못했을 때에는 지푸라기라도 광어모양으로 만들어 이것을 찌서 광어라 이름을 붙여 가져와야 했다. 그러나 그것이 왜 그랬는가는 전해지는 바가 없다.

등바루놀이에 굴캐기 경연이 삽입되고, 큰아씨가 탄생하면서부터 아침식사의 전통도 바뀌게 되었다.

이전과 비교하여 달라진 점은 식사를 할 때도 질서가 생긴 것이다. 1980년 이후의 식사 과정을 살펴보면 우선 가져온 음식을 한 곳에 모아놓고 처녀들과 음식을 가져온 그들의 가족들이 둥그렇게 둘러앉아 큰아씨가 먼저 가장 맛있어 보이는 음식을 몇 숟가락 먹어 본다. 그런 다음 굴캐기경연에서 이긴 편 소녀들이 수저를 들어 음식을 먹기 시작하면 이어서 나머지 사람들이 다함께 음식을 먹기 시작한다.

대부분 섬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겠지만 장고도에서도 섬 인구가 감소하고, 15세 전후의 소녀들은 대부분 학교교육 때문에 외지에 나가서 생활하다보니 등바루놀이에 참가하는 대상도 1992년에는 아주머니들로 바뀌게 되었다. 또한 대상이 바뀌면서 예전에 어머니나 언니들이 날라다 주던 식사전통은 없어지고 1992년에는 아주머니들이 집집마다 직접 돌면서 쌀을 한 되 정도씩 걷어 그것으로 밥을 지어 식사를 한다.

사. 여 흥

식사가 끝나면 이때부터 소녀들만의 갖가지 유희가 시작된다.

놀이는 지금도 그 내용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까그매<사진-21>와 줌방넌

기를 비롯한 다양한 놀이를 하였다. 춤을 추기도 하였고, 노래를 하기도 했으며 때로는 길게 늘어선 백사장에 가서 지치도록 달려보기도 하는 등 문밖 출입이 자유롭지 못했던 그 시대에 마치 해방이라도 맞이한 듯이 이들은 일정한 규칙이나 계획된 순서 없이 마음껏 놀이를 즐겼다. 이밖에도 ‘강강술래’나 ‘도라지타령’과 같은 통속적 민요를 부르기도 하였고 그들의 애환이 담긴 가사를 즉흥적으로 만들어 그 가사에 즉흥적인 가락을 붙여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듯 노래를 하기도 하였다. 혼처가 정해져 올해 안에 혼례를 올릴 사람이나 혼례를 올리고 싶어하는 사람 중에서는 심지어 애써 지어놓은 돌방을 망가트리며 ‘나는 시집을 가니 내년에는 등바루놀이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놀이는 대부분이 형식 없이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것들이 많았고 그러다 보니 노래 또한 시작도 끝도 없는 것이 많다.

지금은 오랜 세월이 흘러 그 기억이 흐릿하겠지만 장고도 할머니들은(장고도 노인정. 2001. 8.)

『“한양 낭군아 날 데려 가거라,
날 모셔 가거라, 우리네 내 낭군아

우리네 정든 님 생전 살 사람
날 고생 안 시킬 사람 날 데려가시오”

“청천하늘에 잔별도 많고
요네 가슴에 수심도 많더라”

“날 데려 가거라 백년아 친구야
데리고 가자니 금전이 없고
두고 가자니 생이별 이구나

죽어 죽 이별은 넘대도 하지만
살어 생이별은 삼천 초목이 운다.”

“글절이 없어서 못 데려 간단다.
네가 잘나서 일색이더냐
내 눈이 어둡”

“우연히 우연히 우연히 정 췌네
정주지 앓았더라면 이 고생은 안 할 것을”』

과 같은 ‘사랑가’를 주로 부르며 놀이를 즐겼다고 한다.

이렇게 하루종일 그들만의 시간을 보내다 보면 해는 어느새 수평선 가까이 내려오는데 그때가 되면 소녀들은 돌방을 허물고 해가 지면 각자 집으로 돌아간다.

놀이는 큰아씨의 지시에 따라 진행이 되었다. 규수들이 준비를 마치고 모두 모이면 큰아씨는

『오늘은 우리 섬 마을 장고도의
으뜸가는 명절날이다.
우리한번 흥겹게 놀아보세』

라고 지시를 하고, 그러면 소녀들은 ‘와~~’ 하는 함성을 지르면서 놀이를 시작한다. 놀이는 우선 ‘까그매’<악보-5>, ‘쭈방넘기’<악보-6>, 해당화꽃 뺨기 <악보-7> 등의 놀이를 노래를 부르면서 하는데 놀이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마을에서 아주머니들이 풍장을 울리며 찾아와 이들 놀이를 절정에 달하고 그러다 보면 구경나온 구경꾼들도 그들과 어울려 놀이를 같이 하였고 해가 석양에 기울어 놀이가 끝날 때가 되면 집으로 돌아갔던

어머니와 언니들이 등불을 들고 소녀들을 마중 나오는데 막상 그곳에 도착하면 소녀들과 섞여 놀이에 어울리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그 시간은 점점 길어져 결국 저녁 9~10시가 되어야 놀이가 끝난다.

● 까그메<악보-5> ●



까 그 매 -



까 옥 까 옥



어디를가 나

장남가 네

무얼하러가 나

알나아러가 네

알하나주 소

알못주겠 네

왜못주겠 나

아들딸기르려 고

그만두 게



까 옥 까 옥

● 줌방넘기<악보-6> ●

굿거리



웨 - 리 등 등 갈 매 기 등 등
 넘 어 라 넘 자 줌 방 을 넘 자
 어 여 라 넘 자 줌 방 을 넘 자

● 해당화꽃뺨기<악보-7> ●



우 리 집 에 왜 왔 니 왜 왔 어 왜 왔 어
 무 슌 꽃 을 따 겠 니 따 겠 어 따 겠 어



꽃 을 따 러 왔 단 다 왔 단 다 왔 단 다
 해당화 꽃 을 따 겠 다 따 겠 다 따 겠 다

가위 바위 보 / 가위 바위 보 / 와 -----



이 거 서 꽃 방 을 하 나 얻 었 다
 저 서 - 분 하 다 말 도 말 아 라

여흥부분은 1980년 이전의 놀이와 비교할 때 새로운 내용이 삽입된 부분이 많다.

우선 1980년 이전의 격식 없이, 즉흥적이고, 개인기가 돋보였던 놀이들이 이후에는 체계화되어 큰아씨의 지시에 따라 계획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해당화꽃 뺏기’란 놀이와 노래가 삽입되어 행해지고 있다. 또한 소녀들의 어머니와 언니들이 등불을 들고 마중을 나오는 것도 삽입된 것이며, 이전의 놀이에서는 볼 수 없었던 풍물이 놀이에서 사용되고 있다.

아. 귀 로

장별에서의 놀이가 끝나면 소녀들은 꽃나부춤(舞童타기)<사진-22>²¹⁾을 추면서, 또 흥겹게 노래를 부르면서 길게 열을 지어 마을로 내려간다<사진-23>. 이때는 보통 몸무게가 가벼운 사람이 위에 올라간다. 마을 어귀에 이르면 벌써부터 마을사람들이 나와 그들을 맞이해 준다. 그러면 소녀들은 그들과 섞여 다시 한 번 갖가지 노래와 춤판을 벌이다가, 몸이 지칠 대로 지치고 나면 그제서야 놀이는 모두 끝이 나고 소녀들은 가정으로 돌아간다.

백사장에서 놀이가 끝나고 마을로 내려와 놀이가 끝나는 과정에서는 비교적 달라진 내용은 없지만 동네로 오는 과정에서 불리는 등바루노래는 예전에 없던 것으로 이것은 경연대회에 참가하고자 각색된 부분이다.

21) 농악의 용어. 농악대의 행진이나 놀이 때 소년들이 어른들의 어깨 위에 서서 춤을 추며 재주부리는 것을 말한다. 이 소년들을 보통 舞童이라하며 “경기도지방에서는 피조리, 충청도지방에서는 꽃나부라 한다.”

한국민속사전편찬위원회, 『한국민속대사전』, (서울:民衆書館, 1998), p536.

2. 전승되어 온 과정

가. 대회 및 주요행사 참가 실적

- 1) 1973년 전국 민속 경연대회 장려상 수상²²⁾
- 2) 1980년 제21회 전국 민속놀이 경연대회 충청남도 대표로 참가 문화공보부장관상 수상.
- 3) 1988. 10.(1회) - 1998. 10.(10회) '만세보령문화제'에 참가 민속놀이 시연.

나. 보전 과정

- 1) 전해오다가 중단된 놀이를 1980년 충청남도과 보령군에서 오천면 장고도를 중심으로 발굴²³⁾.
- 2) 그 후 대천여자고등학교를 민속시범학교로 지정하여 계승.
- 3) 1987년. 대천여자상업고등학교로 이관하여 현재까지 전승.
- 4) 1980년 이후에는 진학이나 직장문제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소녀들이 외지에 나가고 없어 놀이를 하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이 놀이를 하지 않으면 마을이 좋지 않다고 하여 1992년 당시 보령군청의 지원을 받아 동네 아주머니들이 놀이를 하였다.

22) 한국민속사전편찬위원회, 『한국민속대사전』, (서울: 민중서관, 1998), p459.

23) 保寧郡誌 編纂委員會, 『保寧郡誌』, (忠南: 保寧郡, 1991), 4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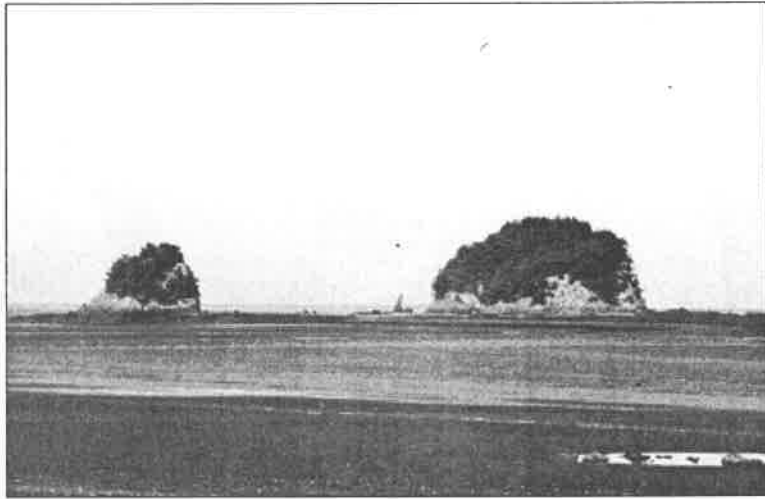
3. 등바루놀이 자료 사진



〈사진-3〉 등바루 놀이에 사용된 굴 바구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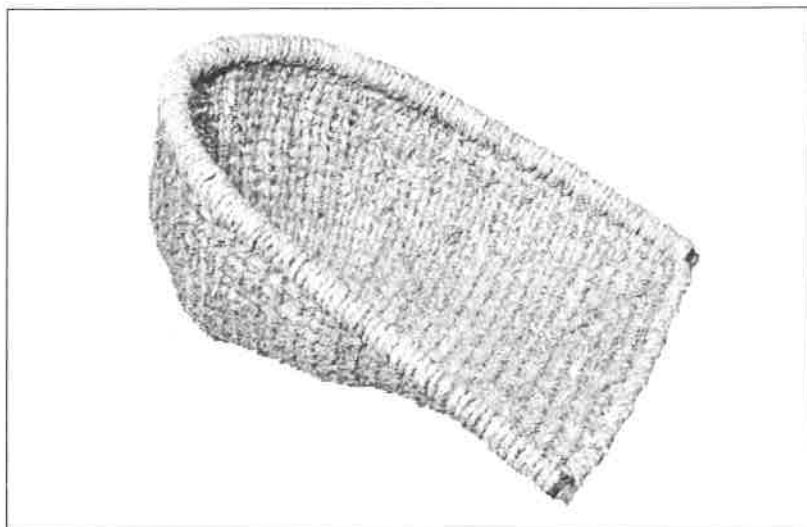
〈사진-4〉 굴밥을 주기 위해 굴 밭으로 가는 장면



〈사진-5〉 장벌에서 바라본 명장섬



〈사진-6〉 명장섬 주변에서 바라본 장벌(중앙이 놀이터)



〈사진-7〉 돌을 나를때 사용하던 삼태기



〈사진-8〉 돌방을 만들기 위해 돌을 쌓고 있는 장면²⁴⁾

24) 이필영, 「생활문화」, 『島嶼誌』中, (대전: 忠淸南道, 1997)



〈사진-9〉 1990년대 초반에 사용하던 돌 방 흔적



〈사진-10〉 돌 방 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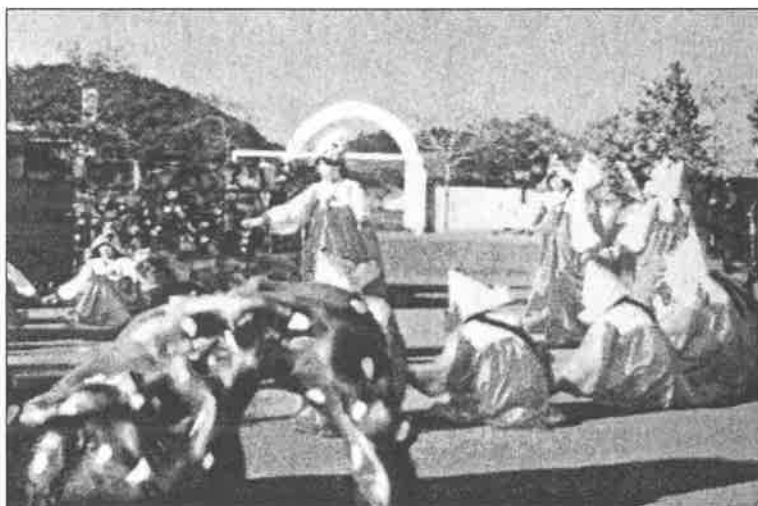


〈사진-11〉 조새²⁵⁾



〈사진-12〉 굴 캐는 작업을 흥내내는 장면

25) 바위에 붙어있는 굴을 따는데 사용하는 쇠갈고리. 손잡이 뒤의 작은 꼬챙이는 굴의 껍질을 벌려 살을 꺼내는데 사용됨.



〈사진-13〉 큰아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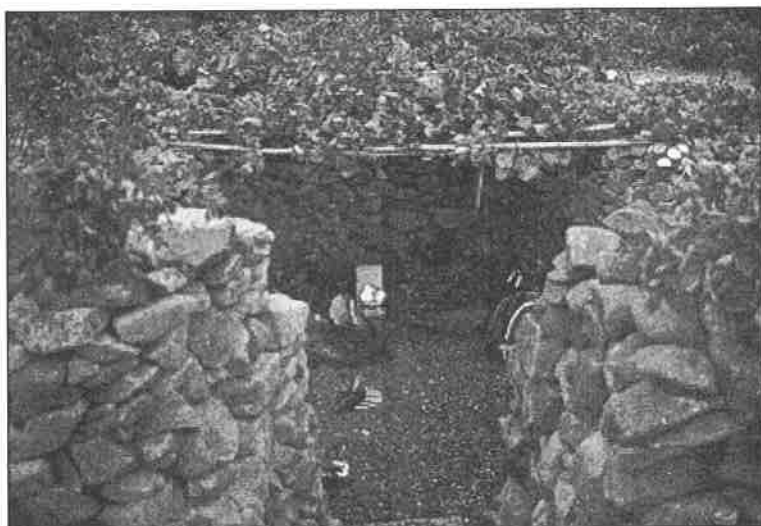
〈사진-14〉 무리 지어 피어 있는 해당화



〈사진-15〉 해당화 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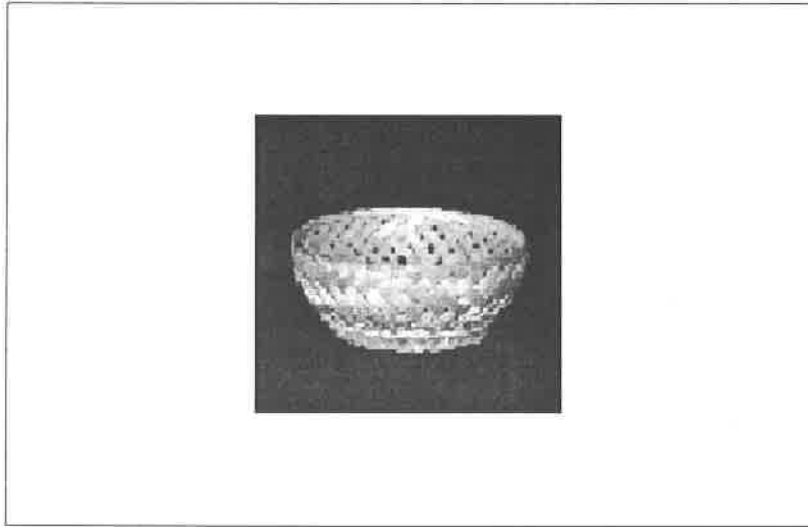
〈사진-16〉 해당화 꽃밭침통이 익은 열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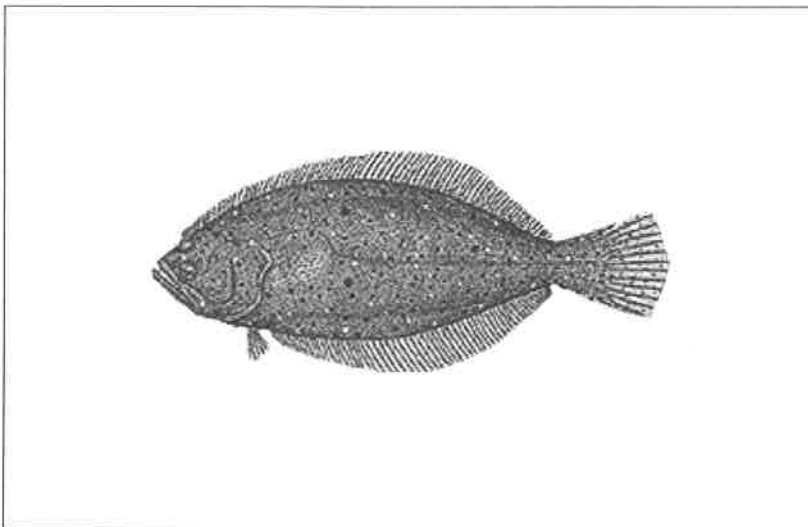
〈사진-17〉 해당화 꽃다발로 장식한 돌 방



〈사진-18〉 해당화 꽃을 꽂아 장식한 제단



〈사진-19〉 등바루 놀이에서 사용되던 광주리



〈사진-20〉 등바루 놀이에서 반찬으로 사용된 광어



〈사진-21〉 까그메 놀이 장면



〈사진-22〉 꽃나부춤(무동타기)



〈사진-23〉 꽃나부춤을 추며 마을로 돌아가는 장면

제4절 등바루놀이 시연행사의 실제

이 등바루놀이 시연행사의 실제는 장고도 주민들의 구술을 토대로 한 1980년 이전의 내용과, ‘만세보령문화제’에서 시연된 내용을 바탕으로 필자가 재구성하여 각종 문화행사에서 놀이시연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1. 시연목적과 가치

가. 단체활동을 통하여 화합과 협동정신을 기른다.

- 나. 민속놀이를 통하여 조상들의 얼을 이어 받아 애향심과 효도정신을 기른다.
- 다. 능동적인 활동을 통하여 근로, 소득증대 정신을 기른다.
- 라. 규수들의 놀이이지만 어머니와 언니들도 식사를 준비하고 그들과 어울려 주면서 같이 참여하게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외딴섬에 모여 사는 섬 마을 사람들의 화합과 상부상조 정신을 기를 수 있으며,
- 마. 굴캐기와 같은 생산적 활동을 통하여 소득증대와 근로 정신을 기르고 돌방꾸미기나 여흥을 통하여 협동단결의 정신을 함양하게 되고,
- 바. 부모님의 강령 함이나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놀이를 통하여 효도정신을 기를 수 있으며,
- 사. 조상들이 즐겨 놀던 놀이를 통하여 그 얼을 전승 발전시키는 계기가 된다.

2. 단계별 진행과정

시연행사의 단계별 진행과정은 ①인원편성→ ②소품준비→ ③소품배치→ ④입장→ ⑤인사대형 갖추기 및 인사→ ⑥굴부르기 대형갖추기 및 굴밥주기→ ⑦돌방만들기→ ⑧굴캐기 경연→ ⑨큰아씨 뽑기→ ⑩의상 갈아입기→ ⑪식사→ ⑫여흥(까그매, 줌방넘기, 해당화꽃 빼앗기)→ ⑬귀로의 순으로 진행된다.

가. 인원 편성

놀이에 참가하는 인원은 <표-2>과 같이 편성하는데 행사의 규모나, 장소 등을 고려하여 동네아저씨나 아주머니들을 가감하여 편성한다.

〈표-2〉 등바루놀이 인원 편성

순서	역 할	인원(명)	구 분
1	큰 아 씨 지난해 큰아씨	2	동, 서편 인원 각각 1명씩 포함
2	동편 소녀	30	
3	서편 소녀	30	
4	풍 물 패	6	팽과리 1 징 1 장구 2 북 2
5	소 리꾼		풍물패에서 겸함
6	언니들	5	
7	어머니들	6	
8	기수	3	
계		80	

나. 소품 준비

소품은 <표-3>에서와 같이 준비하며 역시 인원편성과 같이 행사의 규모나 장소, 인원에 따라 조절하여 준비한다.

<표-3> 소품 목록

순서	품 명	수 량	비 고
1	흑색한복	74	
2	흰색한복	6	
3	속 바 지	74	
4	버 선	74	
5	짚 신	74	
6	쌓는 돌 모형	300	
7	흰 수 건	74	
8	꼬깔모자	74	
9	굴 바 위	10	
10	명장섬 모형	1	
11	큰아씨 모자	1	
12	등 불	40	
13	조 세	74	
14	굴바구니	74	
15	해당화 꽃(인조)	300	
16	색동한복	74	
17	댕 기	74	
18	검 정 신	74	
19	대 표 기	1	
20	놀 이 기	1	
21	풍 어 기	1	
22	큰 대바구니	1	
23	광 주 리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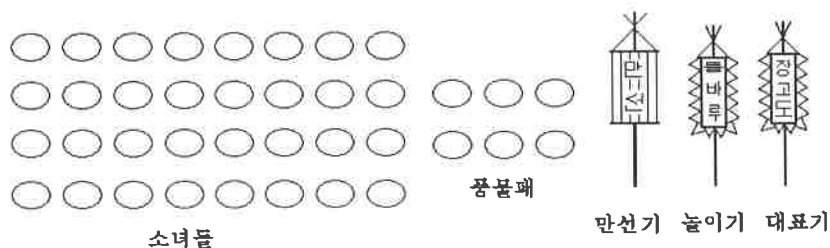
다. 소품 배치

놀이를 시작하기 전에 4가지 즉 명장섬 모형, 돌방 모형 2개, 굴 바위 10개와 한복보자기를 <그림-1>에서와 같이 미리 행사장에 배치한다. 즉 명장섬 모형은 관중석 반대편 중앙에 놓고, 명장섬 모형 양쪽 옆으로 돌방 모형을 놓으며, 굴바위는 중앙에서 놀이를 할 수 있도록 명장섬모형에서 30여 미터 이상을 충분히 띄워 관중석 앞에 배치하며 한복보자기는 돌방 안에 가져다 놓는다.



<그림-1> 소품 배치

라. 입장



〈그림-2〉 입장 대형

놀이꾼

풍물패가 잣은 이채를 연주하다 접으면 <그림-2>에서와 같이 기수는 맨 앞에, 다음에는 풍물패가, 그 뒤로는 규수들이 4열 종대로 입장을 하는데 이때 소녀들은 오른쪽 2줄은 왼쪽 팔에, 왼쪽 2줄은 오른쪽 팔에 굴 바구니를 걸고 나가며, 양쪽 바깥쪽 줄의 홀 수 열은 굴 바구니를 든 반대편 팔에 등도 하나씩 걸고 간다. 여기에서는 풍물패의 ‘등타령 장단’<악보-8>에 맞추어 ‘등타령’<악보-1>을 반복해서 부르며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놀이마당의 중앙으로 나가 인사 대형을 갖춘다.

입장할 때 동네아주머니, 할머니, 동네아저씨, 언니들과 같은 기타 인물들이 있을 때는 규수들 뒤를 따라 입장을 같이한 후 인사가 끝나면 돌 방 뒤에 가서 대기한다.

● ‘등타령’장단<악보-8> ●



● 등타령<악보-1> ●



☞ 풍물패 - 잣은 이채 / 등타령

풍물패는 입장준비가 끝나면 잣은 이채 연주하여 관중들을 집중시킨 후 접고 인사대형을 갖출 때까지 등타령을 연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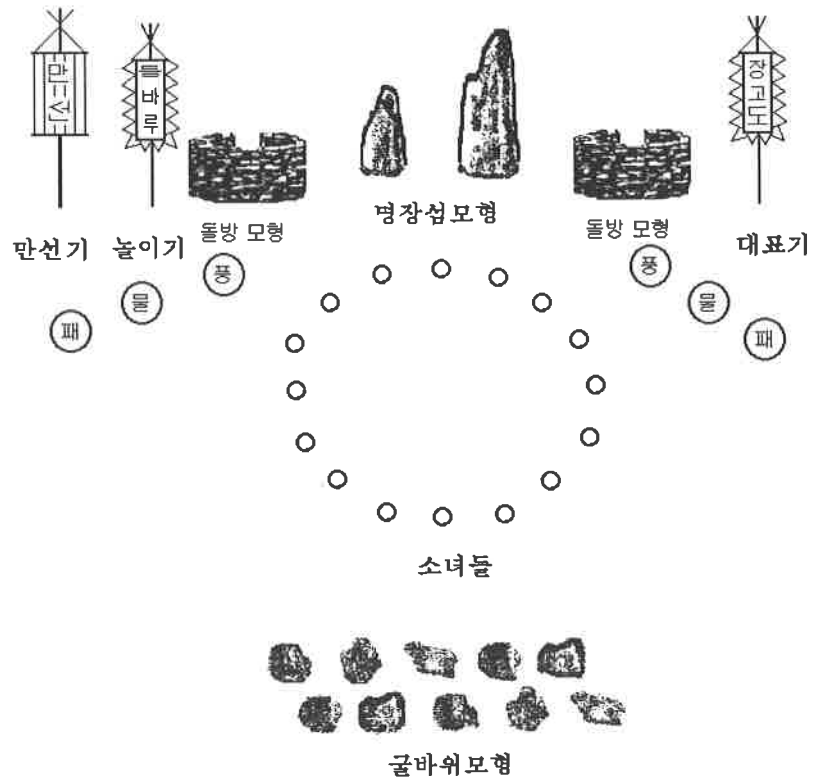
☞ 소리꾼

입장이 시작되어 인사대형을 갖출 때까지 등타령을 부른다.

마. 인사대형 갖추기 및 인사

☞ 놀이꾼

<그림-3>과 같이 입장하여 원을 만든 후, 풍물패의 빠른 장단에 맞추어 한 바탕 흥을 돋구다가, 풍물패의 지시에 따라 관중들에게 인사를 한 후, 풍물패의 삼채 장단에 맞추어 다음 대형을 갖춘다.



〈그림-3〉 인사대형

☞ 풍물패 - 잣은 이채 / 인사가락 / 등타령

놀이꾼이 인사대형을 갖추고 나면 빠른 이채를 연주하여 한바탕 놀 수 있도록 연주하다가, 인사가락을 연주하여 인사를 다 같이 한 다음, 소녀들이 굴부르기 대형을 갖추기 때까지 등타령을 연주한다.

바. 굴부르기대형 갖추기 및 굴밥주기

☞ 소녀들

인사가 끝나면 등타령을 부르면서 <그림-4>에서와 같이 대형을 갖춘 고, 굴 바구니는 발 앞에 등은 발 뒤에 놓은 후, 옷소매를 걷고 치마는 치켜올려 끈으로 동여 메어 굴에 밥 줄 준비를 한다.



<그림-4> 굴밥 주기 대형

준비가 끝나면 풍물패는 곳거리장단에 맞추어 굴부르기 노래<악보-2>를 부르며 굴밥주기를 한다.

① 굴부르기 노래<악보-2> ①



굴밥 주기는 허리를 90° 정도 굽혀 왼손으로 바구니를 들고, 오른손으로 굴밥 주는 자세를 취하며 굴바위가 있는 곳까지 한 걸음씩 걸어가면 그것으로 끝난다. 굴바위 앞까지 가는 동안에 굴부르기 노래는 2회를 반복을 한다. 따라서 노래가 끝날 때 굴바위 앞에 다다르도록 속도를 조절하여야 한다. 굴부르기 노래가 끝나고 모두 굴바위 앞에 도착하면 소녀들은 ‘굴아~~’하고 굴을 부른 후 놓고 두었던 등이 있는 위치로 가서 그것을 들고 풍물패의 삼채 장단에 맞추어 어깨춤을 추면서 좌측으로 멀게 돌아 놀이깃발 뒤편으로 퇴장을 한다.

☞ 풍물패 - 등타령 / 굿거리

인사가 끝나면 소녀들이 굴부르기 대형을 갖추고 굴밥을 줄 준비가 끝날 때까지 등타령을 연주하다가, 준비가 끝나면 굴부르기 노래를 2번 반복하여 부를 때까지 굿거리장단을 연주한 후 소녀들이 굴을 부르자마자 연타를 치다가, 그들이 등이 있는 위치로 가서 등을 들고나서부터 퇴장이 끝날 때까지 삼채장단을 친다.

☞ 소리꾼

소녀들이 굴밥주기를 시작하면 풍물패의 굿거리장단에 맞춰 굴부르기 노래를 2회 반복하여 부르고, 소녀들이 등 위치로 뛰어갈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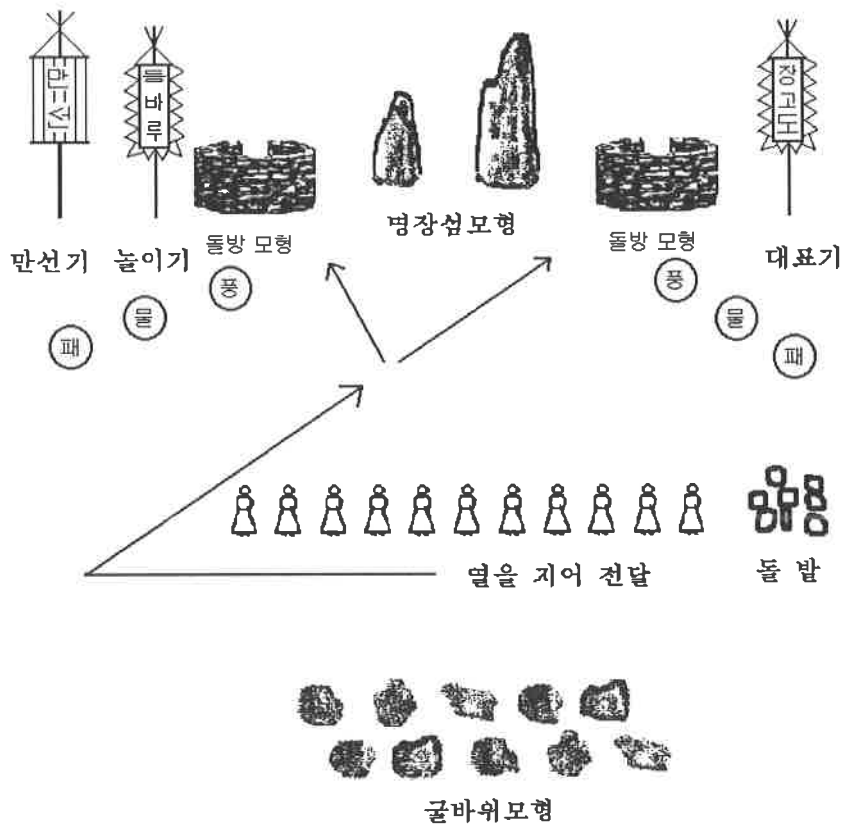
『굴아 다른 마을로 가지 말고 우리마을을 잘 찾아서 돌아와라』

하고 노래가 아닌 말로 목청껏 소리를 지른다.

사. 돌방만들기

☞ 소녀들

풍물패가 삼채를 연주하면 그 장단에 맞추어 삼태기를 들고 덩실덩실 춤을 추며 2열로 돌밭으로 가서, 풍물패의 굿거리 장단에 맞춰 <악보-3>의 ‘등바루 노래’를 부르면서 삼태기에 돌을 담아, <그림-5>에서와 같이 돌방으로 이동하여, 삼태기를 돌방에서 약간 멀리 내려놓은 다음, 돌을 하나하나 전달하여 차곡차곡 쌓아 돌방을 만든다.



〈그림-5〉 돌방 쌓기 및 꾸미기 대형

그런 다음 돌방 양옆을 통하여 뒤로 가서, 해당화꽃을 들고 명장섬 모형 사이로 나와 돌방만들기를 끝내고, 삼태기를 들고 중앙으로 나왔다가 풍물패의 삼채 장단에 맞추어 퇴장을 한다.

㉠ 등 바 루 노 래<악보-3> ㉠

받는 부분



어 허 아 에 루 아 - 좀 아

메기는 부분



우 리 네 명 -- 장 섬 -



경 치 도 좋 구 요

받는 부분

어허야 에루아- 좋아

메기는 부분

우-리-네 명--장섬- 경치도 좋구요

비-파-여 진--여-- 조개도 많고요

대-머-리 어--장-- 고기도 많고요

천-년-을 하루-같이- 서있는 여-는

어엽하-는 장고-도에- 상징-이란다

용난바-위 명장-섬에- 경사가 났-네

장-고-- 초--연에- 풍악이 울리네

해-마-다 풍악-이룬- 소슬-였지만
 삼십육-관 동그-라미- 박통을 지-어
 생-황-금 굴러-굴러- 걸이지 않-네

 다섯바-위 나--란히- 널려- 있는곳
 파-란-물 바람-소리- 차례로 울-려
 저에 물-힌 옛--노래- 구슬-프구나

 등바루-는 우리-마을- 명절-이라네

☞ 풍물패 - 삼채 / 굿거리 / 삼채

굴부르기가 끝나고 퇴장할 때부터 돌방을 만들기 위해 돌밭으로 갈 때까지 삼채를 계속하여 연주하다가, 소녀들이 돌밭에 모두 도착해서부터 돌방꾸미기가 끝날 때까지 굿거리 장단을 연주한 다음, 퇴장할 때는 다시 삼채를 연주한다.

☞ 소리꾼

소녀들이 돌밭에 모두 도착하여 돌방꾸미기가 끝날 때까지 등바루노래를 부른다.

아. 굴캐기 경연

☞ 큰아씨

굴을 캐는 동안 큰아씨로 뽑힐 사람을 미리 정하여 큰아씨 의상을 갖추도록 한다.

☞ 소녀들

옷 보따리와 굴 바구니, 조새, 호미를 가지고 풍물패의 굿거리 장단에 맞추어 지난해 큰아씨의 뒤를 따라서 춤을 추며 중앙으로 나왔다가, 명잠섬 모형 가운데를 지나 양쪽으로 나뉘어 의상 보따리를 돌방에 넣어 놓은 다음, 돌방 옆에 앉아서 지난해 큰아씨의 지시를 기다린다. 지난해 큰아씨의 지시가 내려지면 ‘와~~’하는 함성과 함께 뛰어 나와 마당의 중앙으로 나와 ‘굴부르기 대형’에서와 같이 한 줄로 횡으로 서서 발 앞에 굴 바구니와 조새를 내려놓고 소매를 걷어올리고, 치마는 치켜올려서 치마끈을 동여매어 쿵을 캐기에 편리한 복장을 갖춘 후 큰아씨의 다음 지시를 기다린다. 지난해 큰아씨가 『자 나를 따르라』라고 지시하면 ‘와~~’하는 함성과 함께 굴 발 앞으로 뛰어가, 앉아서 ‘굴캐기 노래<악보-4>’를 반복하여 부르며 굴캐기를 한다. 이 때 조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굴바위에 가서 작업을 하고 호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바닥에서 다른 해산물을 채취하는 동작을 취한다.

굴캐기를 하다가 풍물패가 연타를 치면 굴캐기를 멈추고 굴 바구니를 머리에 이거나 들고서 중앙으로 모인다.

● 굴캐기 노래<악보-4> ●



에 야 루야 노야

에 야 루야 노야



잘 도 한 - 다 잘 도 한 다
 조 개 잡 - 이 잘 도 한 다
 어 - 제 - 도 여 에 살 고
 내 - 일 - 도 여 에 사 네

 바 삭 바 - 삭 잘 도 까 네
 여 왕 탄 - 생 누 구 일 까

 해 - 당 - 화 만 발 하 고
 오 - 늘 - 도 등 바 루 날

 용 난 바 - 위 경 사 났 네
 얼 - 시 - 구 좋 을 시 고

☞ 풍물패-굿거리 / 빠른 / 연타 / 잣은 이채 / 굿거리장단

돌방만들기가 끝나면 소녀들이 입장할 때 굿거리장단을 연주하다가, 소녀들이 옷 보따리를 돌방에 넣고 모두 앉으면 소리를 접은 후, 지난해 큰아씨의 ‘--- 따르라’하는 지시가 내려지면 소녀들의 합성과 함께 연타를 치다가 잣은 이채 연주를 한다. 그런 다음 소녀들이 굴캐기 복장을 갖추고 지난해 큰아씨가 ‘--- 시작한다’라고 다음 지시를 하면 징을 한번 친 후 굿거리장단을 연주한다. 그런 후 소녀들이 굴캐기가 어느 정도 진행되면 연타를 쳐서 끝났음을 알려준다.

☞ 지난해 큰아씨

규수들 맨 앞으로 나와 규수들과 같이 입장을 하여, 규수들이 명장섬을 지나 돌방으로 들어갈 때는 중앙으로 춤을 추며 나왔다가, 소녀들이 옷 보따리를 돌방에 모두 넣고 나면,

『자 나를 따르라』

라고 명령을 내린다. 규수들이 중앙으로 나와 복장을 모두 갖추는 동안 중앙으로 나와 덩실덩실 춤을 추다가, 소녀들이 복장을 모두 고쳐 입고 풍물패가 장단을 멈추면 소녀들 대열의 중앙으로 나와 손을 입에 올린 후

『오늘은 우리 섬 마을 최고의 명절날이다.

지금부터 굴캐기 겨룸을 하는데

가장 많이 캔 사람을 금년도 여왕으로 삼을 것이다.

그럼 징 소리에 시작한다』

라고 지시를 한다. 그런 후 소녀들이 굴캐기 노래를 부르며 굴캐기를 하는 동안 여기저기 기웃거리거나, 중앙을 뛰어 다니기도 하고, 그 작업을 도와주기도 하다가 한참 후 풍물패가 연타를 치면 소녀들과 같이 중앙으로 가서 모인다.

☞ 소리꾼

지난해 큰아씨가 두 번째 지시를 하면 소녀들이 ‘와~~’하고 함성을 지르는데 이때 풍물패의 장단에 맞추어 ‘굴캐기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여, 풍물패의 굴캐기가 끝났음을 알리는 연타소리가 들리면 노래를 멈춘다.

자. 큰아씨뽑기

☞ 소녀들

지난해 큰아씨의 첫 번째 지시가 내려지면 와하는 함성과 함께 굴 바구니를 모아 놓고 중앙으로 나가서, 풍물패의 장단에 맞추어 한바탕 신나게 춤을 추다가, 풍물패의 지시에 따라 멈춘 다음, 지난해 큰아씨가 굴캐기에서의 이긴 편을 발표하면 이긴 편은 함성을 지르고, 진 편은 땅을 치며 서운해하는 동작을 취한다. 그런 다음 지난해 큰아씨가 새롭게 선정된 ‘큰아씨 명단’을 발표하면 ‘와~~’하는 함성과 함께 중앙으로 나와 춤을 추다가, 선발된 큰아씨가 등장하면 다 같이 그를 둘러싸아 축하를 해주며 어울려 흥겹게 춤을 춘다.

☞ 지난해 큰아씨

풍물패의 연타가 끝나면

『이제부터는 가장 많이 캔 편을 고르고 그 편에서
가장 많이 캔 사람을 우리마을 큰아씨로 지명한다』

라고 명령을 내린다. 그런 다음 소녀들이 굴 바구니를 모아 놓으면 해산물을 확인하여 성적을 가늠하는 동작을 취한 후 중앙으로 나와서, 풍물패가 소리를 멈추면

『금년도 승리는 동쪽(북쪽)이고 』

라고 승편을 발표한 후 소녀들의 함성이 멈추면 다시

『금년도 큰아씨는 0 0 0 요 』

라고 선발된 ‘큰아씨 명단’을 발표한 후 중앙으로 나가 소녀들과 어울려 춤을 춘다.

☞ 풍물패 - 연타 / 잣은 이채 / 연타 / 잣은 이채 / 삼채

놀이꾼이 중앙으로 모이면 연타를 멈추었다가, 지난해 큰아씨의 명령이 내려지면 소녀들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잣은 이채 연주하다가, 지난해 큰아씨가 중앙으로 나오면 그 장단을 멈춘다. 그런 다음 지난해 큰아씨가 채취한 해산물을 가늠하여 이긴 편을 발표하면 짧게 연타를 친 후, 큰아씨 명단을 발표하면 연타를 짧게 친 후 바로 이어서 잣은 이채 연주하다가, 중앙으로 나와 소녀들과 함께 섞여 흥을 살린다.

☞ 큰아씨

굴캐기 경연이 시작되면 돌방으로 들어가서 왕관을 쓰고 대기하고 있다가, 지난해 큰아씨가 ‘큰아씨 명단’을 발표하면 중앙으로 나와 소녀들과 섞여, 그들의 축하를 받으며 어울려 춤을 춘다.

☞ 어머니, 언니들

밥 광주리를 이고 등장하여 광주리를 주변에 내려놓은 후 소녀들과 어우러져 춤을 춘다.

☞ 모든 놀이꾼

춤판이 끝나면 풍물패의 삼채 장단에 맞추어 퇴장을 한다.

차. 의상갈아입기

큰아씨를 뽑고 나서 춤판을 벌일 때 20여명 정도는 돌방으로 들어가 의상을 미리 갈아입은 후 다음을 준비하는데 그중 한 명은 큰아씨 의상을 갖춘다. 춤을 추던 나머지 소녀들은 큰아씨뽑기가 끝나면 서둘러서 의상을 갈아입는다.

카. 식사

큰아씨를 뽑고 나면 어머니와 언니들은 중앙으로 광주리를 들고 나가 원을 만들어 앉고, 춤판을 벌이던 소녀들이 퇴장을 하는 동안 미리 의상을 준비했던 큰아씨와 소녀들은 풍물패의 굿거리 장단에 맞추어 춤을 나와서, 광주리를 몇 명씩 둘러 쌓아 군데군데 둥그렇게 앉는다. 이때는 퇴장한 소녀들이 의상을 갈아입고 나올 수 있도록 원을 한바퀴 돈 뒤 천천히 앉는다. 그러면 큰아씨는 먼저 수저를 든 후

『우리 어머니들이 가져온 맛있는 음식들이다. 마음껏 먹어보자』

라고 소리를 지르면 ‘와~~’하는 함성과 함께 다함께 식사를 하는 시늉을 하게 된다.

식사를 할 때는 우선 큰아씨가 가장 맛있게 보이는 음식을 숟가락을 들어 먼저 맛을 보고, 이어서 굴캐기 경연에서 이긴 편 소녀들이,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이 숟가락을 들어 음식을 먹는다.

식사가 끝나면 큰아씨는 규수를 대표하여, 어머니와 언니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하고, 섬마을의 무사함과 풍어에 관한 소원을 목청껏 소리질러 빈다. 큰아씨가 소원을 빌고 나면 모든 소녀들은 함성을 지르며 일어나 풍물패의 삼채 장단에 맞추어 춤을 추며 퇴장한다.

☞ 풍물패 - 굿거리 / 연타 / 삼채 / 연타 / 삼채

입장을 할 때 삼채 장단을 치다가, 소녀들이 식사대형을 다 갖추면 소리를

접은 후, 큰아씨가 ‘--- 먹어보자’라고 외치면 연타를 친 후 식사를 하는 동안 삼채를 치다가 접고, 아씨가 소원을 빌고 나면 소녀들의 함성과 함께 연타를 친 후 소녀들이 퇴장할 때 삼채를 친다.

타. 여 흥

☞ 소녀들

식사가 끝나면 명장섬 사이로 들어가 해당화꽃으로 장식한 고깔모자를 쓰고, 큰아씨의 뒤를 따라서 풍물패의 굿거리 장단에 맞추어 명장섬 모형 사이로 나온다. 놀이마당에서는 <그림-6>에서와 같이 중앙에 나와 둥그렇게 원을 만들며 돌다가, 풍물패가 장단을 멈추면 선다. 그런 다음 큰아씨가 ‘---놀아나 보세’라고 외치면 ‘와~~’하는 함성과 함께 큰아씨를 가까이 둘러쌓아 조그만 원을 만든 후 풍물패가 삼채 장단을 치면 튀어나가 듯 나가며 다시 큰 원을 만들어 ‘까그메 놀이대형’을 만든 후 풍물패가 장단을 멈추면 선다.

☞ 큰아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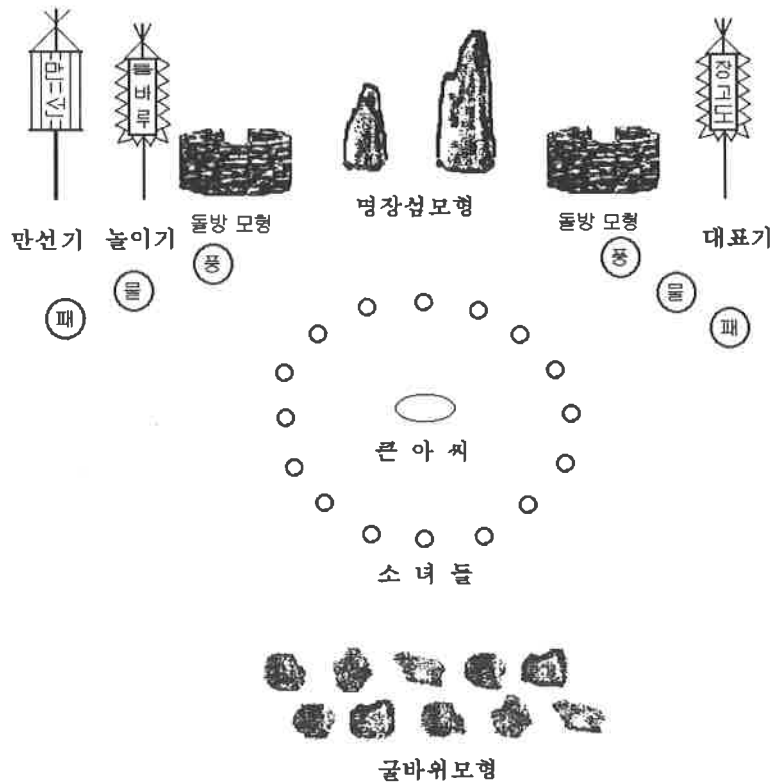
식사가 끝나면 돌방으로 가서 왕관을 쓰고 풍물패의 굿거리장단에 맞추어 놀이마당으로 나와 소녀들이 원을 둥그렇게 만드는 동안 그 원의 중앙에 위치한다.

소녀들이 원을 만들고, 풍물패가 장단을 멈추면

『“오늘은 우리 섬 마을 장고도의 최고의 명절날이다”

“우리 한번 흥겹게 놀아나 보세”』

라고 외친다.



〈그림-6〉 까그메놀이 대형

☞ 풍물패 - 굿거리장단 / 연타 / 삼채

소녀들이 입장을 시작할 때 굿거리 장단을 연주하다가, 소녀들이 모두 중앙으로 나와 원을 만들면 소리를 접고 큰아씨가 ‘---놀아나 보세’라고 외치면, 연타를 친 후, 소녀들이 큰아씨를 둘러싸아 작은 원을 만들면 소리를 접고 삼채를 연주하다가 ‘까그매 대형’이 갖춰지면 장단을 멈춘다.

■ 까그매

☞ 소녀들

풍물패가 소리를 접으면 바로 이어서 ‘까그매 소리<악보-5>’를 하는데 여기에서는 풍물패 없이 큰아씨가 선소리로 묻고 규수들이 후 소리로 답하는 형태를 취한다. 이때 동작은 새가 날개 짓을 하듯 팔을 양쪽으로 펴서 아래위로 움직인다. 규수들은 선소리를 할 때는 제자리에서 중앙을 보면서 약간 오금을 접으며 날개 짓을 하고, 후 소리를 할 때는 우측방향으로 180도 돌아서 앉았다가 일어나고, 다시 돌아서 앉았다가 일어나며 날개 짓을 계속한다.

☞ 큰아씨

큰아씨는 원 안에서 이리저리 날개 짓을 하고 다니면서 선소리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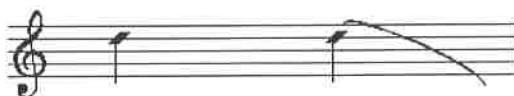
● 까그매 소리<악보-5> ●



까 그 매 -



까 옥 까 옥



어디를가 나

강남가 네

무얼하러가 나

알나아러가 네

알하나주 소

알못주겠 네

왜못주겠 나

아들딸기르려 고

그만두 게



까 옥 까 옥

■ 줄방넘기

☞ 소녀들

까그매 놀이가 끝나면 다음 지시 없이 바로 이어지는데 소녀들은 줄방넘기 노래<악보-6>를 계속 반복하여 부르며 ‘줄방넘기 대형<그림-7>’에서와 같이 양쪽으로 나뉘어 옆 사람의 손을 잡고 앞은 다음, 원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계속해서 만들며 대형에서 오른쪽부터 한 사람씩 일어나 앞사람의 뒤를 따른다. 그렇게 반복하다 보면 나중에는 모든 사람이 일어서게 되고 모두 일어나 게 되면 두 편의 앞사람과 뒷사람이 손을 마주잡아 큰 원을 만든 후, 풍물패의 신호가 떨어지면 손을 잡은 채 ‘줄방넘기 놀이’는 끝이 난다.

❶ 줌방넘기 노래<악보-6> ❶

굿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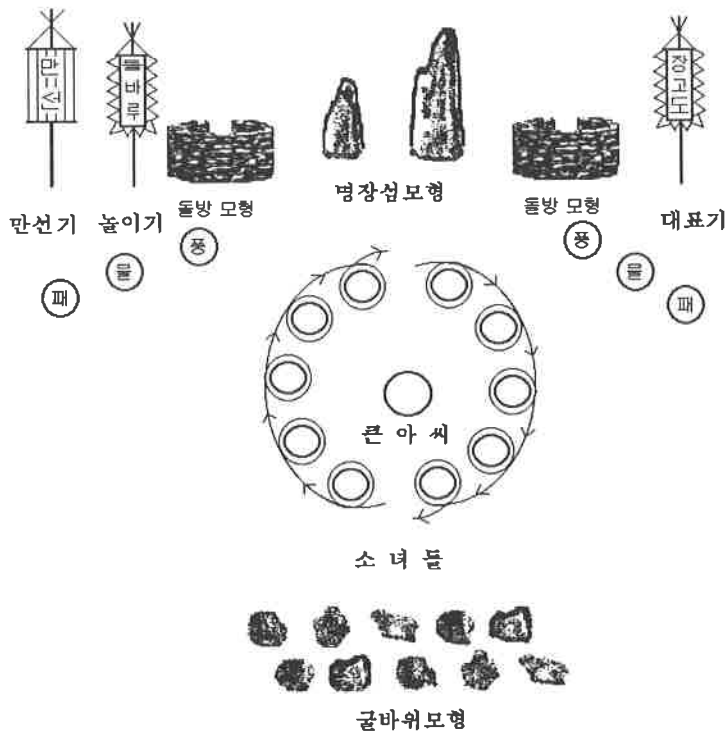


웨 - 리 둥 둥 갈 매 기 둥 둥

넘 어 라 넘 자 줌 방 을 넘 자

어 여 라 넘 자 줌 방 을 넘 자

이 놀이에서는 장단에 맞추어 사뿐사뿐 리듬을 타는 동작이 필요하며, 이때 시선은 강박에는 왼쪽, 약박에는 오른쪽을 바라본다.



<그림-7> 줌방넘기 대형

☞ 큰아씨

놀이가 진행되는 동안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춤을 추다가 줌방넘기 놀이가 끝날 때쯤이면 원의 안쪽으로 들어온다.

☞ 풍물패 - 줌방넘기 놀이를 하는 동안 굿거리 장단을 연주한다.

■ 해당화꽃 빼앗기

‘줌방넘기놀이’가 끝나면 ‘마을의 안녕과 섬 안 어른들의 만수무강을 기원하는 놀이’를 아래와 같이 잠시 한 후 ‘해당화 꽃 빼기 놀이’를 한다.

☞ 소녀들

줌방넘기 놀이가 끝나면 원을 만든 후 손을 잡고 선다. 그런 다음 큰아씨가 ‘---라’ 외치면 ‘와~~’하는 합성을 치른 후 풍물패의 삼채 장단에 맞추어 ‘오래 오래’<악보-9>

① 오래 오래<악보-9> ①



라는 노래를 반복하며 부르며 원에서 한 사람이 잡은 손을 풀고 명석을 맡듯이 우측으로 계속 뛰면서 돌아 큰아씨를 원을 좁히면서 여러 겹으로 둘러싼 후 풍물패가 장단을 멈추면 노래를 멈추고 선다.

그런 다음 다시 큰아씨가 ‘---라’ 외치면 ‘와~~’ 하는 합성을 지르고 이어 ‘애들아 노래’<악보-10>를 반복하여

● 애들아 노래<악보-10> ●



부르며 말았던 원을 풀어 ‘해당화꽃 빼앗기 대형<그림-8>’을 갖춘 후 풍물패의 지시에 따라 노래를 멈추고 선다.

☞ 큰아씨

쭈방넘기놀이가 끝나고 규수들이 중앙에 원을 만들면 섬마을의 무사함과 풍어를 기원하는 내용을 즉흥적으로 만들어 외친다. 그런 다음 소녀들이 가까이 다가와 다시 원을 만들고 서면 이번에는 부모님이나 마을 어른들을 부르며 그분들의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내용을 즉흥적으로 만들어 외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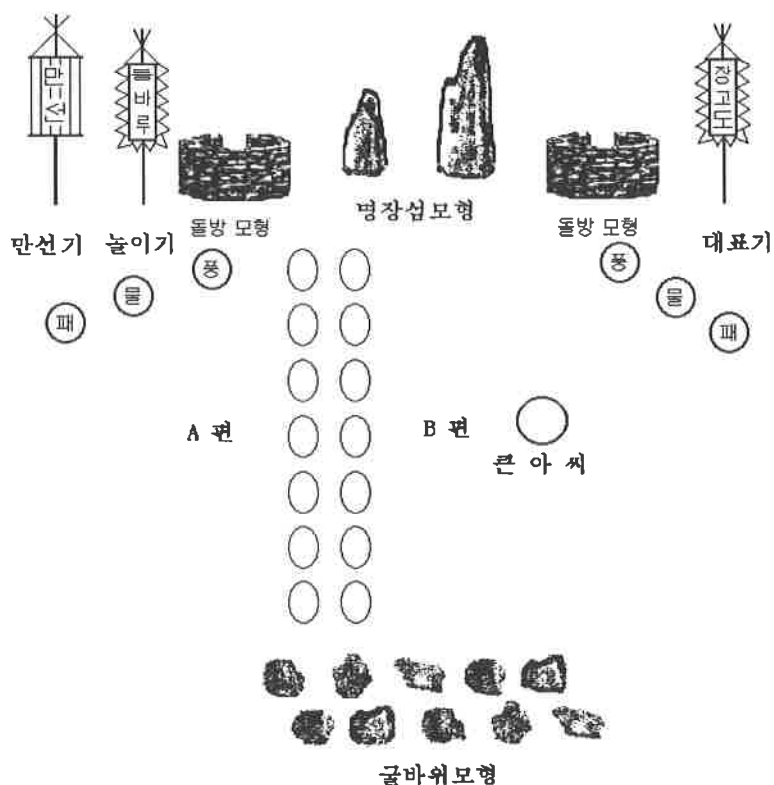
☞ 풍물패 - 연타 / 삼채 / 연타

큰아씨가 ‘---라’ 외치면 연타를 친 후 삼채를 연주하다가, 소녀들이 큰아씨를 둘러쌌아 원을 만들면 멈추었다가, 다시 큰아씨가 ‘---라’ 외치면 연타를 친다.

☞ 소녀들

기원하는 의식이 끝나면 풍물패의 장단에 맞추어 해당화꽃 빼앗기 노래<악

보-7>를 부르면서 해당화꽃 빼앗기 놀이를 한다.



〈그림-8〉 해당화꽃 빼앗기 대형

이 놀이는 두 편이 마주보고 서서, 옆 사람과 손을 잡고 장단에 맞추어 오른 발, 왼발을 앞으로 내면서 앞으로 조금씩 나가며 노래를 하다가 노래를 멈추고 가운데로 모여 한 사람씩 앞으로 나와서 가위, 바위, 보 시합을 한 후 이긴 편은 손을 들고 ‘와~~’ 하는 함성을 지른 후 처음 위치로 돌아가면서 남은 노래를 하는 놀이인데 이와 같은 방법으로 2~3번을 하면 ‘해당화 꽃 빼앗기 놀이’는 끝이 난다.

❶ 해당화 꽃뺨기<악보-7> ❶



우 리 집 에 왜 왔 니 왜 왔 어 왜 왔 어
무 슨 꽃 을 따 겠 니 따 겠 어 따 겠 어



꽃 을 따 러 왔 단 다 왔 단 다 왔 단 다
해당화 꽃 을 따 겠 다 따 겠 다 따 겠 다

가위 바위 보 / 가위 바위 보 / 와 -----



이 겨 서 꽃 방 을 하 나 얻 었 다
저 서 - 분 하 다 말 도 말 아 라

☞ 풍물패 - 삼채 / 연타

소녀들이 노래를 할 때는 삼채를 치며, 가위바위보가 끝나고 원위치로 돌아갈 때는 연타를 치는데 이것을 두 번 반복한다.

☞ 큰아씨

소녀들이 놀이를 하는 동안 춤을 추면서 대형 주변을 돌아다닌다.

파. 귀로

☞ 놀이꾼

해당화꽃 빼앗기 놀이가 끝나면 기수를 비롯한 모든 놀이꾼이 중앙으로 나와 풍물패의 장단에 맞춰 춤을 추며 마지막 흥을 살린다.

그런 다음 풍물패의 인사가락에 맞추어 인사를 한 후 ‘꽃나부춤 추기’를 하면서, 등바루노래를 부르며 입장할 때와 같은 순서를 갖춘 뒤 퇴장한다. 꽃나부춤을 출 때는 보통 큰아씨와 몸무게가 가벼운 사람이 위에 올라간다.

☞ 어머니, 언니들 - 등 / 광주리

일부는 소녀들 옆에서 등을 높이 들고, 일부는 광주리를 머리에 이고 소녀들 뒤를 따라가며 덩실덩실 춤을 추며 퇴장한다.

☞ 동네주민

대형의 가장 뒤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며 따라간다.

☞ 풍물패 - 잣은 이채 / 인사가락 / 굿거리장단

해당화꽃 빼앗기 놀이가 끝나면 한바탕 춤을 출 수 있도록 잣은이채를 연주하다가, 어느 정도 진행된 다음에 인사가락을 연주하며 다 같이 인사를 하고, 인사가 끝나면 모두 퇴장할 때까지 굿거리 장단을 연주한다.

3. 시연시 유의할 점

등바루놀이는 바닷가 백사장 한 구석에 조용히 피어있는 해당화꽃을 보고 있는 듯한 소박한 놀이다. 따라서 질서있고, 절도있는 동작을 요구하기보다는 소박하고 은은한 감정이 느껴지도록 전개되어야 한다.

4. 소품제작 방법

가) 돌 모형 만들기

돌 모형은 대략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50, 25, 20cm 정도의 크기로 만들고 목재나 스티로폼을 잘라 도색을 한 후 사용하면 간단하다. 그러나 스티로폼은 자칫 바람이 불기라도 하면 날아갈 수 있는 단점이 있기도 하다.

나) 굴바위 모형 만들기

굴바위 모형은 가로세로 50-80cm 정도면 가능하며, 큰 바구니를 2-3개 넣고 종이를 바른 다음 도색을 하면 사용하기에 충분하다.

다) 명장섬 모형 만들기

명장섬 모형은 2개를 만드는데 작은 것은 높이가 2-3m, 바닥면 지름은 1.5-2m 정도면 가능하고, 큰 것은 높이가 3-5m, 바닥면 지름은 2-3m 정도면 가능하다.

제작방법은 우선 대나무 같은 목재나 굵은 철사로 뼈대를 만든 후 종이를 바르고 도색을 하면 사용하기에 충분하다.

여기에서 명장섬 큰 것은 반쪽씩 만들어 붙여놓는 방법도 있다.

제3장

등 불 써 기 놀 이

장고도 지역에서 전승되고 있는 ‘등불써기놀이’를 장고도 주민들의 구술과 [이필영, 『도서지 중』, (대전 : 충청남도, 1997), pp498~500.]의 내용을 근거로 재구성한 것임을 밝힌다.

제1절 장고도 등불써기놀이 개관

1, 유래(由來) 및 어원(語源)

농촌(農村)지역 남녀노소가 풍년(豐年)을 염원(念願)하며 갖가지 놀이를 하고 있듯, 어촌(漁村)의 남녀노소 또한 풍요로운 삶을 바라며 풍어(豐漁)를 기원하는 다양한 놀이를 하고 있다.

충청남도 서해안(西海岸)의 대부분 섬지역에서는 지금부터 약 410여년 전부터 해마다 선달 그믐이나 정월 대보름이 되면 15세 전후의 소년들이 모여 풍어를 기원하는 등불써기(등불싸움)놀이를 하였다.

그러나 이 놀이가 지금은 보령시 오천면 장고도에서만 간혹 행해지면서 그 맥(脈)을 유지하고 있을 뿐 대부분 섬에서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자취를 감추고 말았는데 이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장고도 인근의 원산도와 효자도에서는 매년 음력 선달 그믐이 되면 두 섬간에 등싸움²⁶⁾을 했다. 그러나 수 백년 동안 이어져 오던 등싸움은 대동아 전쟁 당시 소년들이 강제로 징용되면서 의욕이 상실되고, 소년들의 수가 줄어 맥(脈)을 잇지 못하고 사라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장고도와 동남방 약 500여미터 앞에 있는 고대도라는 두 섬간에도 등불써기라는 놀이가 있어 해방 전까지만 해도 해마다 선달 그믐날 밤이 되면 두 섬간에도 이 놀이가 두 마을의 큰 행사로 열리고 있었다. 그러나 고대도에서는 등불로 인하여 주변에 널어놓은 그물을 불태울 수 있다는 어른들의 염려가 있어 1980년대부터 감추기 시작했고, 장고도의 놀이 또한 현재까지 전승되고 있긴 하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매년 열리지는 못하고 각종 경연대회나 지역의 문화행사에서 간혹 행해지

26) '등불놀이' 혹은 '등맞이' 라고도 불렀음.

고 있을 뿐이다.

등불써기놀이의 유래에 대해서 지역의 민속지들은 아래와 같이 전하고 있다.

『해마다 설달 그믐날이 되면 마을 소년들이 마을을 모아 마을의 안녕과 풍어(豐漁)를 기원(祈願)하는 놀이를 하는데 그 놀이를 등불써기 놀이라 한다.』

또한 ‘제32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만들어진 각본에서는 등불써기 유래(由來)를 다음과 같이 기술(記述)하고 있다.

『장고도는 마을은 주민 대부분이 조상 대대로 어업을 생업으로 하는 서해도서 지역으로서 오랜 예로부터 이 등불써기놀이 행사를 함으로써 흑산도 근해의 고기떼가 모여들어 풍어가 되는 것으로 믿어오고 있다
이 놀이에는 고대도와의 ‘등싸움, 놀이가 있는데 등불써기란 말은 이 등싸움에서 파생(派生)된 것이다.』

2. 놀이 시기(時期) 및 장소(場所)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문턱에 서면 여러 나라, 여러 지역에서 다양한 놀이를 하고 있는데, 장고도에서도 해마다 설달 그믐이 되면 마을 뒤에 있는 동무대<사진-24>에서 소년들이 풍어를 기원(祈願)하는 등불써기라는 놀이를 하였다.

3. 놀이 참가 대상자

장고도에는 청소년 민속놀이가 소년들 놀이, 소녀들 놀이로 구분되어 있는데 소녀들의 놀이는 그 대상이 엄격히 제한적(制限的)인 반면 소년들이 하는 등불써기놀이는 장고도에 거주(居住)하는 소년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었다. 놀이에 참가하는 소년들의 연령에 관하여 장고도 주민(남운균, 69세)은 “1950년대 이전에는 그 나이가 보통 15세 전후였는데, 근래에는 소년들의 결혼 시기가 늦어지면서, 놀이에 참가하는 소년들 나이도 점점 늘어나 20살이 넘어간 청년들도 놀이에 참가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4. 등불써기놀이 특징(特徵)

가. 특별히 교훈적(敎訓的)인 놀이이다.

다른 해안(海岸)의 민속놀이와 같이 풍어제(豐漁祭)의 성격(性格)을 띄고 있으면서도 놀이의 내용 중에 어려운 이웃을 도우려는 미풍양속이 담겨 있어 특별히 교훈적(敎訓的)인 놀이이다.

나. 등을 악기(樂器)로 사용을 한다.

민속놀이의 자료를 살펴볼 때 등과 관련한 놀이는 수없이 많지만 등을 채로 쳐서 악기로 사용한 예는 찾기가 어렵다. 그러나 이 놀이에서는 등의 옆면에 한지를 붙여 소리가 잘나고 찢어지지 않도록 부레풀을 바른 후 마치 장구 열채와 흡사한 등채로 치면서 그 장단에 맞춰 등타령을 부른다.

다. 소년들이 풍어를 기원하며 행하는 놀이이다.

민속놀이의 주체자는 민속놀이를 목적이나 내용에 따라 다르다. 민속에 관한 여러 문헌을 통해서 알 수 있듯 보통 어린이들의 놀이에는 놀이 자체가 목적인 놀이들이 많으며, 풍어를 기원하는 놀이들은 주체자가 대부분 성인들이다. 그러나 이 놀이에서는 소년들이 풍어를 기원하며 행하고 있다.

제2절 장고도에서 행하여진 등불써기놀이

1. 진행과정

장고도에서 행하여진 등불써기놀이의 순서인 ①동무대에 모이기 → ②등불 써기 및 등싸움 → ③우물제(祭) → ④떡 얻어오기 → ⑤ 동산 제(祭) → ⑥ 고기떡 불러오기 → ⑦떡 나눠주기를 그 순서에 따라 기술한다.

가. 동무대에 모이기

섣달 그믐날이 되어 서산에 해가 기울 쫘이면 장고도 소년들은 삼삼오오(三三五五) 짝을 지어 등채로 등을 치면서, 그 장단<악보-8>에 맞춰 등타령<악보-1>을 부르며 동무대로²⁷⁾ 모인다.

27) 등불써기놀이가 열리는 마을 북쪽에 있는 낮은 산.

● 등타령 장단<악보-8> ●



● 등타령<악보-1> ●



모두가 모이면 소년들은 그 중에서 나이가 많거나 또는 통솔력(統率力)이 있는 사람 즉 동네 골목대장격의 대장(大將)을 선출하여 이후의 놀이는 대장의 지휘(指揮)에 따라 모두 진행을 한다.

등불써기놀이에서의 등(燈-lam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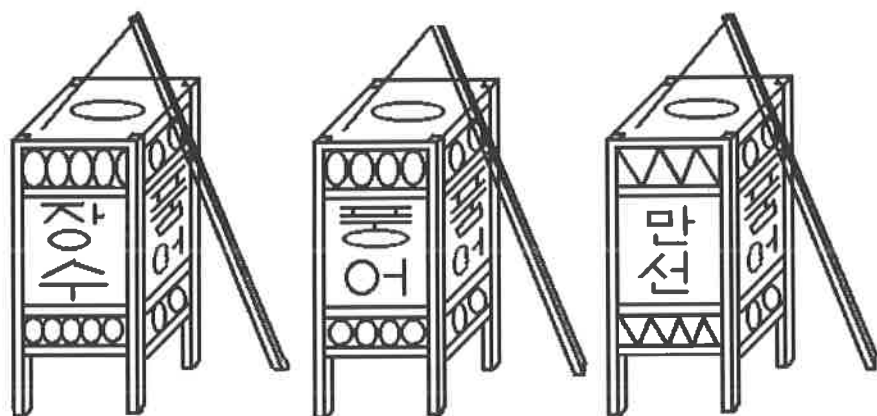
등은 ‘불을 켜서 어두운 곳을 밝히는 것’으로 그 역사가 매우 오래되었는데 『이미 유사(有史) 이전부터 식물이나 동물의 기름(油脂)을 태워 조명에 사용』²⁸⁾ 하였다.

등불써기놀이에서의 등<그림-9>은 소년들과 그들의 가족들이 연 중 그 재료가 생기면 보관해 두었다가, 보통 놀이가 열리기 하루나 이틀 전에 각자 자기 집에서 만들어 사용을 하는데, 만드는 작업은 대부분 아버지가 해주었거나,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 소년들이 하였다.

등을 제작을 하기 위해서는 사각형 나무판자 2장과 기둥을 세울 수 있는 나무 4개, 등의 손잡이를 묶을 수 있는 철사 1m, 손잡이로 사용할 막대기 1개가

28) 『두산대백과사전 Encyber』 <http://www.encyber.co.kr/>.

필요하다. 그러나 이런 재료들은 섬에서는 구하기가 힘들었으며 이 중에서도 특히 나무판자 구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한다. 장고도 주민(박종섭, 63세)에 의하면 “여름 장마 때가 되면 육지나 파손된 배에서 떠밀려오는 나무를 주워 보관해 두었다가 등을 만들기도 했다.”고 한다.



〈그림-9〉 1950년 이전 등불써기놀이에서 사용한 등

또한 등의 기둥으로 쓰이는 나무는 장고도 산에서 꺾어 사용을 했는데 장고도 출신자(편수범, 41세)는 “등을 만들 때 그 기둥은 보통 산에 있는 나뭇가지를 잘라서 이용하였는데, 생나무를 바로 이용하면 촛불의 열에 의해 갈라지기 때문에 이것을 막기 위해 놀이가 있기 보름정도 전에 구해서 그것을 말려 두었다가 사용을 했다.”라고 전하고 있다.

등은 만드는 방법은 우선 굵기가 가로세로 2~3cm 정도의 가느다란 나무를 다듬어 사각기둥 네 개를 세운 다음, 위와 아래는 변 길이가 25-30cm 정도 되는 정사각형 판자를 대는데, 이때 윗면 판자는 촛불이 꺼지지 않게 공기가 통할 수 있도록 지름 10센티미터 정도의 구멍을 중앙에 뚫고, 아래쪽 판자는 양초²⁹⁾를 꼽을 수 있도록 중앙에 못을 박아 놓는다. 골격이 완성되면 위 판자

양쪽에 구멍을 뚫어 철사 줄을 멘 후 고리를 만들어 약 50cm의 막대기와 연결하여 등 손잡이를 만들었다. 그런 다음 등의 옆면은 한지(韓紙)³⁰⁾를 붙이는데 그 작업은 복잡하다. 우선 등의 골격 옆면에 한지를 붙인 후 그 위에는 바닷고기인 민어³¹⁾의 부레를 끓여 만든 강력한 부레풀³²⁾을 칠한 후 간간이 물을 뿌리며 말리면 되는데, 등채로 쳤을 때 ‘쨍쨍쨍’ 경쾌한 소리가 나고 또 한지가 찢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을 2-3회 반복하여야 한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만들진 등은 그 크기가 예전에는 가로와 세로가 각각 30cm의 정육면체였으나, 근래에 와서는 가로50cm 세로60cm으로 조금 바뀌었다.

등불써기놀이에 사용하던 등의 모양은 독특하다. 보통은 등의 기둥이 아래나

29) 양초의 기원은 불명하지만 옛날부터 밀랍이 알려져 있었으며, 몸바이나 그리스의 유적, 중국의 분묘(墳墓)에서 청동으로 만든 촛대가 발견된 것으로 보아 아마도 BC 3세기에는 이미 존재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유럽에서는 오랫동안 밀랍이나 수지(獸脂)로 만든 양초가 사용되었으나, 1800년 초기에 스테아린양초와 파라핀양초가 발명되어 유백색의 아름답고 밝은 양초를 기계적으로 대량 생산하게 되었다.

『두산대백과사전 Encyber』 <http://www.encyber.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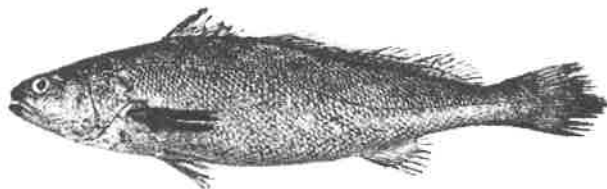
30) “중국으로부터 한국에 한지 제지술이 도입된 시기는 공식적으로는 600년으로 기록되고 있으며 신라시대에 제조된 범한다라니경(梵漢陀羅尼經) 한 장이 현존하는데, 이것이 한국에서 생산된 종이로서 가장 오래된 것”임.

『두산대백과사전 Encyber』 <http://www.encyber.co.kr/>.

따라서 등불써기놀이가 시작될 당시부터 등을 만들 때 한지를 사용했던 것으로 추측됨.

31) “민어과에 속하는 바닷물고기. 몸은 길이60~90cm로 길쭉하고 측편(側偏)하며, 주둥이는 둔하고 아래턱이 위턱보다 짧음. 몸빛은 등 쪽이 회청색이고 배 쪽은 담색임. 짧은 수염이 있고 등지느러미의 앞쪽이 잘록함. 한국 서남 연해·동남 지나해·일본 중부 이남에 분포함. 부레는 풀을 만듦. 민어(鰻魚). 회어(鰯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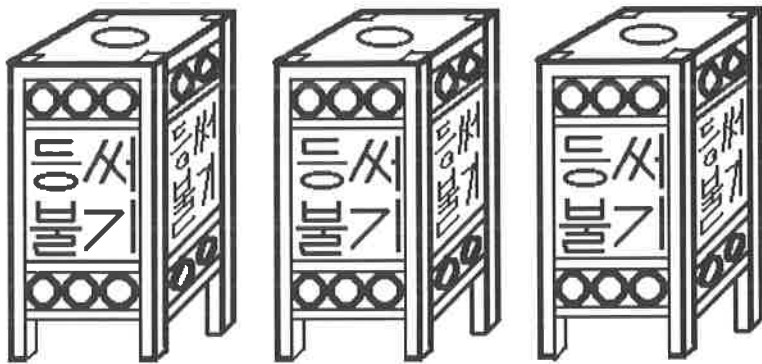
이희승, 『국어대사전』, 第32刷, (서울: 민중서림, 1989), 1326.



32) 바닷고기인 민어에는 공기주머니라 칭하는 ‘부레’가 있는데 이것을 말렸다가 끓이면 강력한 접착제가 되는데 이것을 부레풀이라고 한다.

이 부레풀은 접착력이 강하여 전통 목공예에서 지금도 많이 사용되고 있으나 습기에 약하여 주로 겨울철에 사용을 많이 한다.

위 판자 밖으로 3-5cm 정도 나와 있지만 여기에서 사용되는 등은 아래쪽은 판자 밖으로 나와있지만 위쪽은 판자와 높이가 같다. 또 등의 옆면은 한옥에서 문에 문살이 있듯 등의 옆면에 살을 넣어 장식하였으며, 그 등살이 있는 부분의 한지에는 주로 붉은 색으로 색칠까지 하였다. 또, 등의 옆면 한지에는 그림을 그려 장식을 하였으며 간혹 글을 적기도 했다. 장고도 주민(편명순, 74세)은 “일정 때 ‘대한민국 만만세’라 글을 썼다가 안 된다 하여 사용하지 못한 적도 있다.”고 한다.



〈그림-10〉 최근에 등불싸기놀이에서 사용한 등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등의 모양도 바뀌었다<그림-10>. 우선 등의 손잡이가 없어졌고, 1950년 이전에는 등에 그림을 많이 그렸지만 근래 들어서는 글을 많이 적고 있다. 손잡이가 없어진 까닭을 장고도 출신(편수범, 41세)은 아래와 같이 말하고 있다.

『등에 손잡이가 있다보니 흔들려서 치기가 어려워 근래에는 왼손으로 등을 감싸안고 등채로 치고 있다. 등싸움을 할 때도 등을 품안에 넣어 감싸안다 보니 불편하여 만들지 않았다.』

등불싸기놀이에서의 등은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이 되었다. 첫째 동무대에서

고대도와의 등싸움을 할 때는 싸움도구로 사용되었다. 등싸움에서는 상대편 등의 불빛을 먼저 발견하는 편이 승리하는데 이때 등이 필요했다. 둘째 난로 역할을 하였다. 등싸움을 하는 동안 소년들은 산 위에서 선달 추위와 싸우며 놀이를 하는데 이때 등불을 감싸 안으며 추위를 이겨냈다. 끝으로 악기역할이다. 등불 켜기놀이에서 예전에는 악기가 사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 놀이에서는 등을 마치 장구처럼 등채로 치면서 그 장단에 맞추어 등타령을 불렀던 것이다.

나. 등싸움³³⁾

대장을 선출한 후 해가 지기를 기다렸다가 어둠이 찾아오면 장고도 동무대와 약 800여 미터의 거리에 있는 고대도 봉화산<사진-25>에서는 소년들이 대장의 지시에 따라 등싸움을 한다.

소년들은 우선 등을 들고 상대편 반대 방향의 산 아래로 약간 내려가 등 안에 있는 양초에 불을 지핀다. 등에 불을 모두 지피고, 날이 어두워지면 소년들은 미리 준비하여 입고 온 큰 옷으로 등을 가린 후 본격적인 등싸움을 시작한다. 이때 대부분 소년들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고 대장을 비롯한 몇 명 만이 산 위로 올라가서, 고대에서 불빛이 보이는 지를 정찰(正察)한다. 그러다가 여기에서 고대도의 불빛을 발견하면 먼저 본 사람이 ‘불 봤다’라고 아주 큰 목소리로 외친다. 그러면 모든 소년들도 가렸던 등을 일제히 높이 들면서 ‘불 봤다’라고 같이 외친다. 이때 행복의 표시인지, 패를 인정하기가 싫어서인지는 모르지만 상대편에서도 ‘맞불 봤다’라고 외치는데 등싸움은 이것으로 간단하게 끝이 난다.

소년들은 등싸움에서 승리라도 하는 날이면 신이 나서 동산 위에 몇 바퀴씩 돌기도 하고, 등타령을 소리 높여 부르면서 등을 손잡이를 잡고 빙빙 돌리는

33) 장고도 주민(편제환, 64세)은 예전에는 ‘등싸움’이라는 말은 없었고 ‘불 겨룸’이란 말을 사용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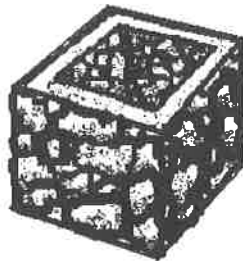
등 잠시동안 놀이판을 벌이다가 동네 우물로 내려간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등싸움은 등의 불빛을 잘 가려서 상대방에게 발각되지 않게 하는 놀이인데 여기에서 상대방에게 불빛이 발각되지 않게 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것에 대하여 장고도 주민(박종섭, 63세)은 이렇게 말한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선달 해풍이 불다보니 그 바람은 소년들의 뺨속까지 시리도록 매서웠으며, 장고도는 지형상 이 바람의 영향을 받아 심지어는 추위를 이기지 못해 상대방에게 불빛을 일부러 보여준 예도 있다. 또 상대방에서 보지 못하도록 옷이나 수건으로 가리거나 추위도 막을 겸하여 감싸 안기도 하는데 이때 등 안의 열기가 대단하여 양초가 녹아 이리저리 흘러내리기도 하고 위에 뚫어 놓은 공기구멍으로 올라오는 열기 때문에 등을 움직이지 않을 수 없는데 이때 조금이라도 관리가 소홀하면 불이 삼시간에 등에 붙기도 하였다.』

이 등싸움은 “승리하는 섬에서는 내년 한 해 동안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고, 재앙이 없다”라는 속설도 있다. 그러나 등불싸기놀이는 우리 나라 대부분의 청소년 민속놀이와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승패에는 그다지 큰 의미를 두지는 않았다.

다. 우물³⁴⁾제(祭) 지내기



〈그림-11〉 우물제를 지내던 우물의 옛 모습

34) 1988년 상수도 시설이 갖춰지면서 사용하지 않지만 이전까지는 사용했었으며, 장고도에서는 우물이라 하지 않고 ‘대동샘’이라 불렀다.

등싸움이 끝나면 대장은 먼저 대열(隊列)을 정리(整理)한 후 두 패로 나누어 그 중 한 패는 당산 앞을 가로질러 가서, 다른 한 패는 당산 뒤 바닷가를 지나서 우물<그림-11>로 간다. 그러나 날씨가 매우 추우면 모두 당산 앞을 지나 우물터로 바로 내려가기도 한다. 소년들이 우물로 이동을 할 때는 등을 등채로 치거나, 빙빙 돌리며 그 장단에 맞추어 등타령을 부르며 이동하였다.

우물터에서 다시 두 편이 만나면 우선 우물 주변을 몇 바퀴정도 돌며 등타령을 더욱 더 소리 높여 부르다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우물제를 거행한다.

우선 소년들이 우물을 중심으로 원형(圓形)의 대열을 갖춘 다음, 대장이 정중(鄭重)하게 우물에 절을 한 후, 우물 안을 들여다보면서 선창으로

『뚫어라 뚫어라 물구녕만 뚫어라』

라고 외치면 모든 소년들도 『뚫어라 뚫어라 물구녕만 뚫어라』를 복창 한 후 등을 ‘뽕뽕뽕뽕’ 치며 답을 하는 형식을 갖춘다. 이런 과정은 보통 3회 정도 반복이 되는데 이것으로 우물제가 끝이 난다.

우물제를 마치고 나면 그들은 다시 등장단(長短)에 맞춰 등타령을 부르면서 우물을 주변을 여러 바퀴 돌고 나서 떡을 얻기 위해 마을로 내려갔다.

우물제 지내기에서의 우물

1988년 섬에 상수도 시설을 갖추면서 지금은 그 모습도 사라졌지만<사진-26>³⁵⁾ 이전까지는 ‘대동샘’이라 부르던 마을 우물이 있었다. 이 우물은 설달 그믐날이 되면, 장고도에서 가장 큰 행사라 할 수 있는 정초(正初) 진대서낭제를 위해서 마을 청년들이 청소를 한다. 이필영 교수에 의하면³⁶⁾

35) 지금은 옛 우물터에 시멘트로 만들어진 우물만이 남아 있을 뿐, 전에 사용하던 우물은 자취를 감추었다.

36) 이필영, 『생활문화』, <島嶼志>中, 충청남도, 1997.

『제 지내기 삼일 전(선달 그믐날)에는 공동 우물을 청소한다. 우물 청소엔 앞서 마을 사람들은 삼일동안 그 물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므로 미리 오전에 물을 길어다 놓고, 빨래도 미리 한다. 오후가 되어 샘을 치러 가면 주민들이 물을 다 가져가서 샘이 말라 있다. 그러면 고인 물로 우물 안을 닦고 새로 자갈을 가져다 깔고 뚜껑을 덮어놓는다. 우물의 입구에는 황토를 퍼다가 놓는다. 누구도 사용하지 말라는 뜻에서이다.』

라고 한다. 지금은 우물 자리에 관정을 파서 집집마다 상수도 시설을 통해서 식수를 조달하고 있지만 예전 같으면 마을 사람들이 모두 이곳까지 와서 물을 길어다 사용을 하여야 했다. 이 우물이 섬에 단 하나다. 때문에 혹 가뭄이라도 닥치면 내륙지방 이상으로 장고도에서는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는데 이 때문에 소년들은 샘을 찾아가 일년 내내 물이 마르지 않고 평평 나오기를 기원하며 그들 나름대로의 간단한 제를 지낸다.

라. 떡 얻어오기

우물제사가 끝나면 소년들은 등장단에 맞추어 등타령을 부르며 동산에서 가장 먼 곳에 있는 집부터 가가호호(家家戶戶)를 방문하여 떡을 얻어 동무대에 올라온다.

떡 얻어오기를 할 때는 떡자루를 메고 가는 사람 즉 대장이 앞장선다. 우선 한 집에 도착하면 대장과 소년들은 대문 앞에 서서 “문엽쇼 문엽쇼 수문대장 문엽쇼”라 외친 후 등을 ‘쨍쨍쨍쨍’ 치는데 이것은 사람이 나올 때까지 몇 번 정도 반복된다. 사람이 나오면 대장은 마루에 자루를 내려놓고 떡을 얻고, 나머지 소년들은 대장이 떡을 얻는 동안 등타령을 부르며 그 집 주변이나 마당

을 몇 바퀴 돌았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소년들은 마을을 돌며 떡을 얻는다.

예전에는 떡을 나눠주지 못할 정도로 형편이 어려운 가정도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 가정에서는 소년들이 떡을 얻기 위해 방문을 하면 예외 없이 반갑게 그들을 맞이해 주며 떡을 성의껏 준비해 주었다고 한다.

주민(박두환, 66세)에 의하면 “떡자루는 광목자루를 사용하였는데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해 마다 같은 집에서 빌려 사용하였다.”고 한다.

떡을 모두 얻고 나면 소년들은 더욱 신이 나서 등타령을 소리 높여 부르면서 떡 자루를 어깨에 메고 처음 모였던 동무대로 간다.

떡 얻어오기에서의 떡

우리 나라는 예로부터 선달 그믐날이 되면 묵은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 가정에서 떡을 하여 제를 올렸으며, 새해를 시작하는 정월 초하루에도 제를 올렸는데 장고도 역시 대부분 가정에서 떡을 하여 그 제를 올렸다. 장고도에서는 이때 이 떡을 많이 하여 등불써기놀이를 하는 소년들이 찾아오면 주었으며, 근래에는 떡 외에 다른 과일이나 과자 등의 음식을 주기도 한다.

마. 제지내기(동산제)

동산에 오르고 나면 이제부터 풍어제라 할 수 있는 소년들이 올리는 제가 시작된다.

떡을 얻어 동무대로 올라온 소년들은 주워온 돌을 여러 방향으로 놓아 ‘제단 <사진-27>’을 만든 후 그 위에 얻어온 떡을 제물로 올린 후, 가지고 다니던 등을 제단 주변이 흰하도록 옆에 내려놓는다. 그리고 나면 대장이 “둥아, 둥아,

등아~”라고 외치고, 소년들은 제단을 향해서 절을 한 후 제단을 보면서 등타령을 여러 번 반복해 부르면 이것으로 동산제는 끝이 난다.

그러나 동산제에서는 돌의 숫자나 방향, 또 절을 하는 방법 등은 어른들을 흉내내는 정도에 지나지 않았으며 엄격하게 지켜야하는 격식 따위는 없다.

제 지내기에서의 제단

명장섬 주변의 돌밭에서 주워온 돌을 사방팔방으로 늘어놓고 이것을 제단으로 사용하였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소년들은 놀이가 있는 날이면 낮에 명장섬 앞 돌밭으로가, 제를 지낼 때 목 기억할을 할 수 있는 깨끗하고 넓적한 돌을 주워 동무대에 가져다 놓는다. 돌은 두께가 보통3-5cm, 넓이는 25cm-30cm<사진-28> 정도였으며, 제단을 만들 때는 보통 다섯이나 여섯 방향으로 만들어 놓고 제를 지낸다. 그러나 제단을 만들 때 돌을 놓는 방향이 전에는 달랐었다는 말도 있는데, 이것에 대하여 장고도 주민(편제환 64세)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돌의 방향은 여덟 방향으로 놓았으며, 아주 오래 전에는 열두 방향으로 놓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바. 고기떼 불러모으기

제가 모두 마치고 나면 이제 소년들은 그곳에서 서해(西海)의 모든 어족(漁族)이 장고도 주위로 몰려들기를 바라며, 일종의 모방 주술적(模倣呪術的) 유희(遊戱)를 시작한다. 즉

『“연평도(延坪道) 조기 떼는 다 모여라”
 “흑산도(黑山道) 갈치는 다 모여라”
 “장고도로 재물이 와서 장고도 배가 그득그득 차게 해주쇼”
 “갯바닥의 조개나 굴도 모두 장고도로 와주쇼”
 “굴아 다른 마을로 가지 말고 우리마을로 와라”
 “조개도 많이 들어오너라”
 “흑산도 홍어 떼는 장고도에 모여라”
 “모집하러 오는 놈들은 번지거리에서 빠져 죽어라”』

등등의 명년에 희망하고 소망하는 것을 주문을 통해 빌어보는데 그 내용은 대장이 즉흥적으로 만들어 사용한다.

여기에서 그 과정을 살펴보면 우선 대장이 소망하는 내용을 담은 주문을 외치면 소년들은 그 주문 속에 나타난 어류들의 시늉을 하거나 대장의 주문에 맞장구를 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연평도(延坪島) 조기 떼는 장고도에 모두 모여라”라고 외치면 여기저기 흩어져있던 소년들이 각기 구부리거나 기면서 옆구리에 양손을 대어 조기가 헤엄치는 시늉을 하면서 한곳으로 모이며 조기들이 꿈틀대는 흉내를 실컷 내고는 흩어지고, 다시 대장이 “흑산도 갈치는 장고도로 모두 모여라”하면 역시 소년들은 손을 엉덩이에 대고 꼬리를 휘젓는 갈치의 시늉을 내며 한곳으로 모여 갈치가 북적대는 모습을 하는가 하면, ‘와~’ 하고 함성을 지르는 등 부르는 고기떼가 장고도로 몰려오는 광경을 묘사한다. 이런 주문 중에는 일제 강점기에 장고도의 젊은이들을 군대로 끌고 가지 못하도록 “장고도로 오던 일본 순사들은 번지거리에³⁷⁾ 빠져죽어라”는 내용도 있었다.

결국 이 놀이는 많은 어족들을 장고도로 불러 들여 마을사람들이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기를 바라고 있고, 또 섬마을의 안녕을 바라는 내용들이다. 이와 같은 놀이를 수없이 반복되다가 끝난다.

37) 고대도와 장고도 사이의 물살이 급한 곳을 일컫는 말.

사. 불우한 이웃에게 떡 나눠주기

제가 끝나고 나면 소년들은 떡을 ‘퇴식’이라 하여 동무대 주변에 쪼개서 뿌리기도 하며, 또 나눠먹기도 하는데, 남은 것은 명일이 명절인데도 불구하고 살림이 궁색하여 떡을 해먹지 못하는 어려운 이웃을 찾아 그들에게 나눠준다. 떡을 얻은 집에서는 추운 몸을 녹일 수 있도록 따뜻하게 국을 끓여주는데, 많은 사람이 가다보면 오히려 폐를 끼칠까 염려하여 나이가 어린 소년들은 집으로 돌아가고, 나이가 많은 소년들 몇 명만이 찾아가 전달한다.

2. 전승되어온 과정

가. 대회 및 주요행사 참가 실적(實積)

- 1) 1989. 5. 충청남도 청소년 건전놀이 대회 ‘특별상’ 수상.
- 2) 1997. 10 제4회 전국 청소년 민속예술제 충청남도 대표로 참가 ‘은상’ 수상.
- 3) 1989. 10.(2회) - 2000. 10.(11회) ‘만세보령문화제’에 참가. 민속놀이 시연.

나. 보전 과정

- 1) 1989년 보령시에서 장고도를 중심으로 발굴하여 보령중학교의 협조로 민속놀이를 체계화.³⁸⁾
- 2) 1990년 주산농업고등학교(現 주산산업고등학교)를 민속시범학교로 지정하여 2002년 현재까지 계승.

38) 保寧郡誌 編纂委員會, 『保寧郡誌』, (忠南: 保寧郡, 1991), 444.

3. 등불써기놀이 자료사진(資料寫眞)



〈사진-24〉 명장섬 해수욕장에서 바라본 동무대



〈사진-25〉 동무대에서 바라본 고대도(중앙에 봉화산)



〈사진-26〉 옛 우물터에 시멘트로 만들어진 우물



〈사진-27〉 동무대에 남아 있는 돌 제단 흔적



〈사진-28〉 돌 제단 만들기에서 사용되었던 돌

제3절 등불써기 놀이 시연행사의 실제

이 등불써기놀이 시연행사의 실제는 전통적으로 전해오던 놀이 내용을 바탕으로 하였다. 그러나 놀이에 없었던 풍물을 삽입했거나 ‘만세보령문화제’에서 시연된 내용을 삽입하는 등 일부를 각색하여 놀이를 시연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놀이 지도서’다.

1. 시연목적(試演目的)과 가치(價値)

가. 지역 문화의 뿌리와 전통(傳統)을 알게 하여 올바르게 보존하려는 태도를 갖출 수 있다.

- 나. 놀이를 통하여 조상들의 얼을 이어 받아 애향심(愛鄕心)과 효도(孝道)정신을 갖출 수 있다.
- 다. 해안지역의 놀이와 타 지역놀이의 비교를 통하여 해안지역 놀이의 실재를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 라. 부모님의 강령함이나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놀이를 통하여 효도정신을 기를 수 있으며,
- 마. 소년들이 행하는 놀이지만 여러 가지 재료를 준비해주고, 또 소품을 만들어주는 과정을 통하여 부모와 자식간에 따뜻한 사랑을 느낄 수 있으며,
- 바. 조상들이 오랫동안 전승하던 놀이를 통하여 그 얼을 전승 발전시키는 계기가 된다.

2. 진행과정

시연행사의 단계별 진행과정은 ①인원편성→②소품준비→③소품배치→④입장대형 갖추기→⑤입장→⑥동무대 모이기→⑦인사→⑧등싸움 대형 만들기→⑨등싸움→⑩우물(대동샘) 제지내기→⑪떡 얻어오기→⑫제단만들기→⑬제지내기(동산제)→⑭고기떡 불러모으기→⑮떡 나누어주기→16인사 및 퇴장순으로 진행된다.

가. 인원 편성

인원편성은 <표-4>을 기본으로 하되 행사의 장소나 규모에 따라서 적절하게 가감하여 편성한다.

〈표-4〉 등불싸기놀이 인원 편성

순 서	역 할	인 원	구 분
1	대 장	2	장고도 1 고대도 1
2	기 수	2	대표기 1 놀이기 1
3	놀 이꾼	40	장고도 20 고대도 20
4	지 게꾼	2	지게꾼 2
5	마을아낙	2	마을아낙 2
6	소 리꾼	6	선소리 3 후소리 3
7	풍 물 패	13	뽕과리 2 징 2 장구 4 북 4 태평소 1
계		66명	

나. 소품 준비

풍물패에 관한 것은 별도로 준비하며, 그밖에 놀이에 필요한 소품은 등불써기놀이 소품 현황<표-5>을 참고하여 준비하며, 이 또한 행사 규모나, 행사장 크기에 따라 적절하게 가감하여 사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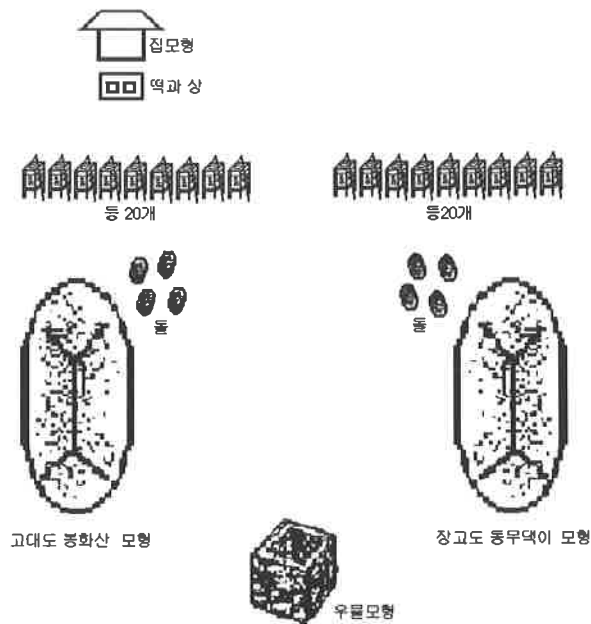
〈표-5〉 등불써기놀이 소품 현황

순서	품 명	수 량	비 고
1	등 불	42	대장, 소년들
2	등 채	42	대장, 소년들
3	돌 모형	6	
4	산모형	2	장고도동무대, 고대도 봉화산(천으로 제작)
5	떡 모형	6	실제 떡을 사용하는 것이 좋음
6	우물모형	1	
7	집 모형	1	가정집
8	상(큰 것)	1	
9	접시(대)	6	
10	바지저고리	52	대장, 놀이꾼, 소리꾼, 기수, 지계꾼
11	조 끼	분홍색 40	놀 이 꾀
		검정색 8	기 수
		파란색 6	소 리 꾀
12	행 사 화	60	전 체
13	두루마기	2	대 장
14	검정치마	2	동네아낙
15	흰 저고리	2	
16	댕 기	2	
17	두 건	2	
18	깃 발	2	
19	댕 기	8	기 수
20	머 리 띠	8	
21	지 계	2	
22	광 주 리	2	지 계 꾀
23	과목자루	2	
24	댕 기	2	
25	머 리 띠	2	
26	댕 기	6	소 리 꾀
27	머 리 띠	6	

다만 여기에서 제시한 소품은 장고도보다는 어떤 큰 행사에서 사용하기 위한 소품으로 편성된 것이다. 따라서 많은 사람이 먼 곳에서도 잘 보이도록 하기 위해 모형(模型)을 주로 사용하였으며 다소 행사를 위해 과장된 부분도 있다. 따라서 참고자료로 이용하되 가능한 본래 민속놀이에서 사용된 것을 사용하거나 그와 흡사하도록 준비되어야 한다.

다. 소품 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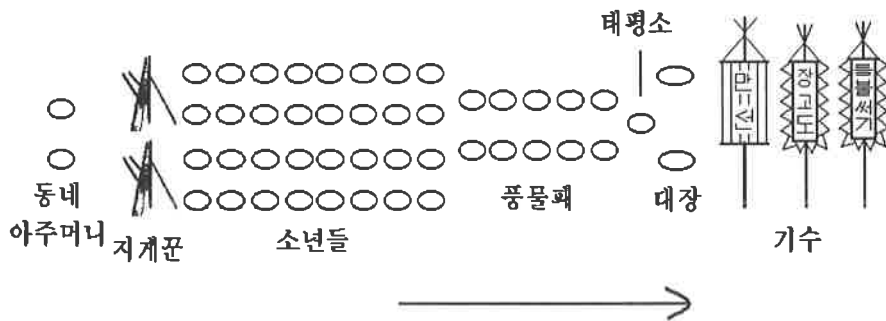
소품은 놀이가 시작되기 전에 <그림-12>과 같이 장고도 동무대모형, 고대도 봉화산모형, 돌 모형, 우물 모형, 가정집 모형, 떡을 소품배치도에 따라 배치한다. 다만 여기에서 떡은 가능하면 실물을 준비하여 가정집모형 앞에 상을 놓고 올려놓는다.



<그림-12> 소품 배치도

라. 입장대형 갖추기

소품배치가 끝나면 <그림-13>과 같이 입장대형을 갖춘다. 이때 대장과 소년들은 왼손에는 등을, 오른손에는 등채를 준비하며, 지계꾼은 지계 위에 광주리를 올려놓고 그 속에는 광목자루를 준비한다.



<그림-13> 입장대형 순서

소리꾼은 입장을 시작하기 전에 행사장 앞에 있는 마이크 위치에 미리 가서 대기한다.

마. 입 장

☞ 풍물패 - 잣은 이채 / 삼채

입장대형이 모두 갖추지면 잣은 이채를 연주하여 관중을 집중시킨 후 삼채를 치며 입장한다.

☞ 모든 놀이꾼

풍물패가 잦은 이채를 치다가 삼채로 장단을 바꾸면 그 장단에 맞추어 어깨춤을 덩실덩실 추며 입장을 한다.

바. 동무대에 모이기

☞ 풍물패 - 등타령<악보-8>

● 등타령 장단<악보-8> ●



입장을 시작한 후 놀이기가 <그림-14>인사대형의 ①번 통로를 지날 때 삼채를 접고 등타령을 연주한다.

입장은 할 때는 대장을 따라 ①,②,③,④번 통로를 지나 중앙으로 들어와 왼쪽으로 돌며 작은 원을 만들어 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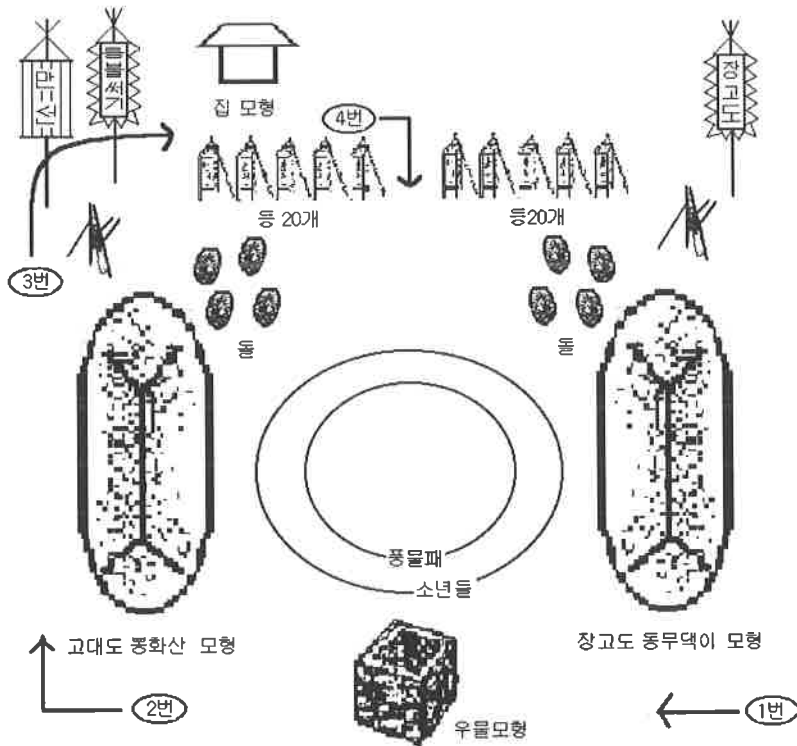
이때 태평소주자는 우물모형 옆을 지나가다가 행사장에 설치한 마이크 앞으로 가서 연주한다.

☞ 기수

기수는 <표-14>인사대형의 ①, ②, ③번 통로를 지나, 놀이기와 만선 기는 왼쪽 구석에, 대표기는 중앙을 지나 오른쪽 구석에 서서 정면을 바라본 후 깃발을 땅에 세워서 놓는다.

대장

풍물패의 지시에 따라 소년들과 같이 등타령을 부르면서, 기수를 따라가다, ④번 통로를 따라 중앙으로 들어온 뒤, 뒤따라오던 소년들이 내려놓는 등을 정렬한 후, 소년들이 만든 원 사이에 들어간다.



〈그림-14〉 인사 대형

놀이꾼

〈그림-14〉인사대형에서와 같이 풍물패를 따라 ①,②,③,④통로를 지나 입장을 한다. ①번 통로를 지날 때는 풍물패의 지시에 따라 등채로 등을 치며〈악보-8〉 등타령〈악보-1〉을 부르고, ④번 통로를 지날 때는 손에 든 등을 양쪽으로 차례차례 내려놓은 후, 중앙에 있는 풍물패 밖으로 원을 만든다.

● 등타령<악보-1> ●



☞ 지게꾼, 동네 아주머니

<그림-14>입장대형과 같이 소년들 뒤에 서서 ①,②,③번 통로를 지나 입장을 한다. ③번 통로를 지날 때 동네아주머니와 지게꾼 한 명이 위치에 서고 남은 지게꾼 한 명은 중앙을 건너 대표기 앞에 선다. 이때 지게꾼은 지게를 내려놓는다.

☞ 소리꾼

모든 놀이꾼들이 ①번 통로를 지날 때 풍물패의 지시에 따라 등타령<악보-1>을 한다. 등타령을 할 때는 3명은 앞소리를 하고, 3명은 뒷소리를 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동무대에 모두 모이는데 모두 위치에 자리하면 풍물패는 잣은 이채를 연주한다. 그러면 소년들을 비롯한 모든 놀이꾼은 한바탕 신명나게 놀이판을 벌인다.

사. 인 사

☞ 풍물패 - 인사가락

모든 놀이꾼이 한바탕 춤을 추고 나면 장단을 접은 후, 인사가락을 연주하며 인사를 한다.

☞ 모든 놀이꾼

한바탕 춤을 추다가 풍물패의 지시에 따라 인사를 한다

아. 등싸움 대형 만들기

인사가 끝나면 풍물패, 대장, 소년들만 이동하여 등싸움 대형<그림-15>을 갖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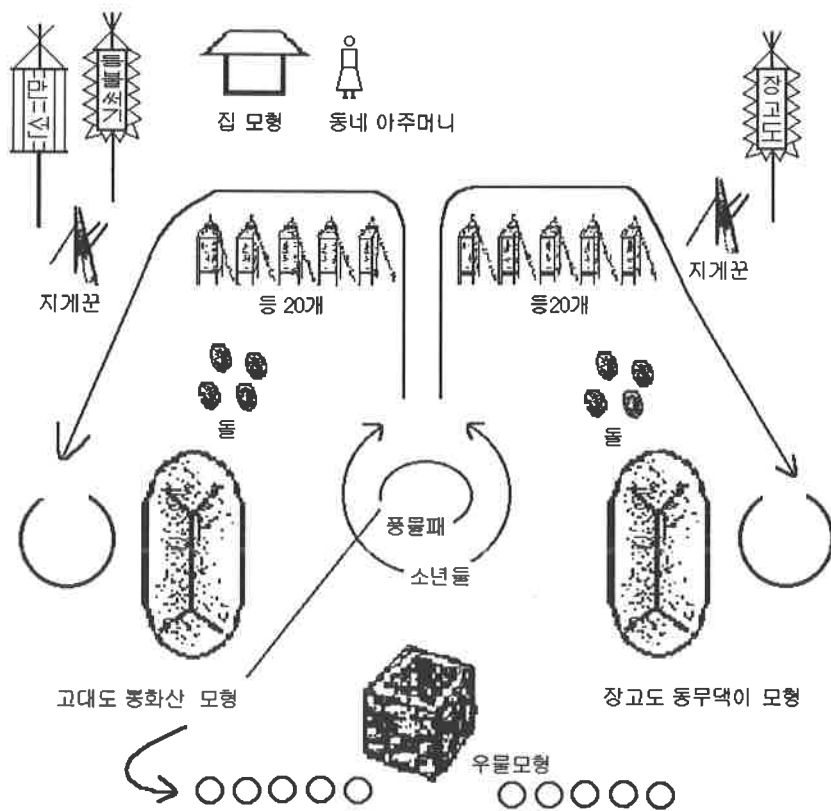
☞ 풍물패 - 등타령 / 잣은 이채

인사가 끝나면, 등타령을 연주하면서, 원을 한 바퀴 돌고 난 후, 등싸움대형<그림-15>에 나타난 방향으로 이동하여, 대장과 소년들이 위치로 가면 장단을 접고 잣은 이채를 연주한다.

☞ 소년들

인사가 끝나면 등타령을 부르면서, 대장을 따라 양쪽으로 나뉘어, 등싸움대형<그림-15>에 나타나 위치로 가서 원을 만들며 돈다.

이동을 할 때는 놓아두었던 등을 가운데 있는 것부터 차례차례 들고 간다.



〈그림-15〉 등싸움 대형

대 장

인사가 끝나면 등타령을 부르면서, 양쪽으로 나뉘어, 등싸움대형<그림-15>에 나타나 위치로 간다. 이동을 할 때는 놓아두었던 등을 들고 가는데 이때는 안쪽에 놓인 것을 들고 가며, 위치에 가서는 소년들이 원을 등그렇게 만들 수 있도록 도와준다.

자. 등싸움

☞ 풍물패 - 연타 / 등타령 / 잣은 이채 / 연타 / 등타령

등싸움대형이 갖춰지면 장단을 접은 후, 대장의 『등불을 감추어라-』 하는 명령에 따라 소년들이 다음 대형을 갖출 때 연타를 치다가, 소년들이 대형을 갖추고 나면 등타령을 연주한다. 그런 다음 대장이 『불 봤다』 하는 고함을 지르면 이긴 편이 신명나게 놀 수 있도록 잣은 이채를 10-20초 정도로 연주한 다음 소리를 접는다. 이긴 편 대장이 ‘---하기로 하자’라고 외치고, 소년들이 ‘그러자’라고 대답할 때 ‘자’소리와 동시에 연타를 짧게 친 후 접고, 등타령을 연주한다.

☞ 소년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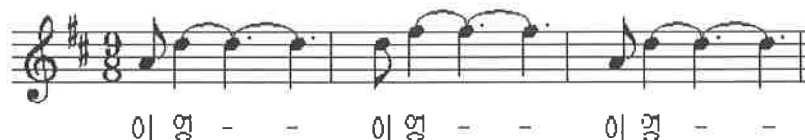
대형을 갖춘 후 대장의 『등불을 감추어라-』 하는 명령이 내려지면 풍물패의 연타소리와 함께 다음 대형을 만든다. 우선 등의 불빛을 가리는 형태가 되도록 등을 원 안으로 넣어 들고, 오른손은 우측 앞사람의 허리를 감싸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하며, 허리는 90도 정도로 구부린다. 그런 다음 풍물패가 연타를 접으면 오른쪽 방향으로 원을 그리고 돌면서 등타령을 부른다. 그러다가 대장이 『불 봤다』라고 외치면 이긴 편 소년들은 등을 다같이 높이 들면서 ‘와~~’하는 함성과 함께 신나게 춤을 추고, 진편 소년들은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다가 풍물패가 장단을 멈추면 일어난다. 그런 다음 이긴 편 대장이 『---하기로 하자』라고 외치면 모두 『그러자』라고 대답하며 등을 위로 올렸다가 내린 후 등타령을 부르면서 이동한다.

대 장

풍물패가 등타령 장단을 접으면 어느 편이든 한쪽 대장이 『등불을 감추어라-』라고 명령을 내린다. 그런 다음 소년들이 등불을 감추고 풍물패가 연타를 끊으면 등타령을 부르면서 소년들에게 다가가 대형의 위치와 모양을 만들어 주다가, 소년들이 원을 2-3바퀴 돌고 나면 어느 한쪽의 대장이 『불 봤다』라고 고함을 지른 후, 이긴 편 대장은 소년들과 섞여 신나게 춤을 추고, 진편 대장은 바닥에 주저앉는다. 그러다가 풍물패가 장단을 접으면 이긴 편 대장은 『우리편이 이겼으니 선소리를 하고 진편은 뒷소리를 하기로 하자』라고 명령을 내린 후, 등타령을 부르면서 이동한다.

차. 우물(대동샘)제 지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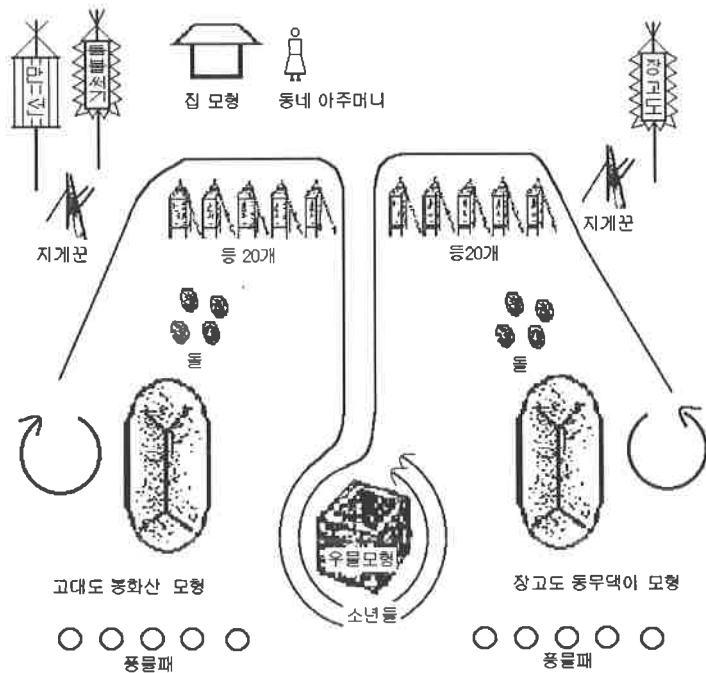
● 긴 이영<악보-11> ●



풍물패 - 연타 / 긴 이영 / 잣은 이채

대장과 소년들이 우물터에 모두 도착하면 연타를 친다. 그런 다음 모두 우물을 향해서 서면 긴 이영<악보-11>을 2회 반복한 후, 소년들이 『---물구녕만 뚫어라』 외치면(2회) 잣은 이채를 친다.

긴 이영을 할 때는 <악보-11>의 세 번째 마디에서 영소리와 함께 연타를 치다가 모두 고개를 숙이면 접는다.



〈그림-16〉 우물터에 모이는 대형

☞ 소년들

우물터에 도착하면 <그림-16>과 같이 우물을 둘러싸고 돌다가 풍물패가 연타를 치면 우물을 바라보고 선 후, 풍물패의 지시에 따라 긴 이영을 2회 반복한다. 그런 다음 대장이 『문엽쇼 문엽쇼 수문대장 문엽쇼』라고 외치면 『뛰어라 뛰어라 물구녕만 뛰어라』라고(2회) 받아서 외친 후, 신나게 춤을 춘다.

긴 이영은 풍물패의 지시에 따라 시작하는데 첫 번째 이영은 소리만, 두 번째 이영은 등을 높이 들면서, 세 번째 이영은 고개를 숙여 절을 하며 한다.

☞ 대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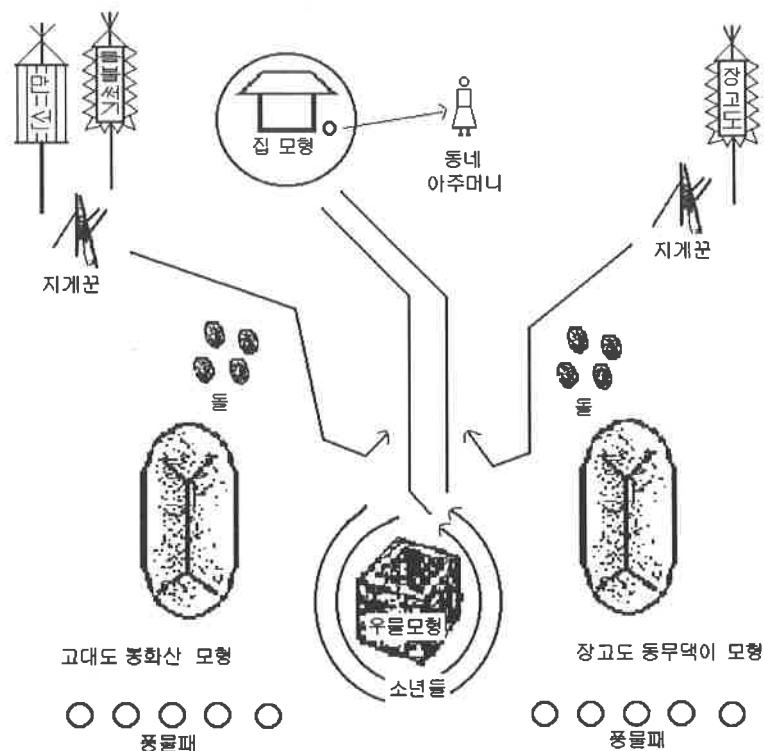
우물터에 도착하면 <그림-16>과 같이 우물을 둘러싸고 돌다가 풍물패가 연타

를 치면 우물을 바라보고 선 후, 풍물패의 지시에 따라 긴 이영을 2회 반복한 후, 우물 안을 들여다보면서 『문엽쇼 문엽쇼 수문대장 문엽쇼』라고 외친 후 소년들이 『뚫어라 뚫어라 물구녕만 뚫어라』라고 외치면(2회), 신나게 춤을 춘다.

긴 이영은 풍물패의 지시에 따라 시작하는데 첫 번째 이영은 소리만, 두 번째 이영은 등을 높이 들면서, 세 번째 이영은 고개를 숙여 절을 하며 한다.

카. 떡 얻어오기

우물제사가 끝나면 소년들은 <그림-17>과 같이 마을로 내려가 아래 설명과 같이 가가호호 방문하여 떡 얻기를 한다.



<그림-17> 떡 얻어오기 대형

☞ 풍물패 - 등타령 / 긴 이영 / 등타령

우물제가 끝나면 등타령을 치다가, 소년들이 떡을 얻기 위해 가정집 앞에 도착하면 장단을 멈추고 긴 이영을 2회 반복한다. 그런 다음 등타령을 다시 연주한다.

☞ 소년들

우물제가 끝나면 풍물패의 지시에 따라 등타령을 부르면서 우물을 주변을 두 바퀴 정도 돈다. 그런 다음 <그림-17>에서와 같이 대장을 따라 가정집 앞으로가 풍물패의 지시에 따라 긴 이영을 2회 반복한 다음 대장이 떡을 얻어 지게에 올리는 동안은 집 주변을 돌고, 그것이 끝나면 대장을 따라 놀이마당 중앙으로 간다.

☞ 대 장

우물제가 끝나면 풍물패의 지시에 따라 등타령을 부르면서 우물을 두 바퀴 정도 돌고 나서 <그림-17>에서와 가정집 앞으로 간다. 풍물패의 지시에 따라 긴 이영을 2회 반복한다. 떡을 얻어 지게에 올린 후 지게를 잡고 놀이마당 중앙으로 나온다.

☞ 지게꾼

우물제가 끝나면 대장이 가정집으로 갈 때 대장 뒤를 따라붙어 가정집으로 간다. 지게를 내려놓고 긴 이영을 2회 반복한 다음 대장이 떡을 얻어 지게에 올리는 동안 지게를 지고 한쪽 무릎을 꿇고 앉아 있다. 떡을 얻고 나면 맨 앞에 서서 <그림-18>과 같이 돌 제단으로 간다.

☞ 동네 아주머니

소년들이 찾아오면 긴 이영을 2회 반복하는데 세 번째 이영에서 맞절을 한다. 긴 이영이 끝나면 떡을 들어 대장에게 준다.

타. 제단 만들기

☞ 풍물패 - 등타령 / 긴 이영 / 등타령

소년들이 떡을 얻어 놀이마당 중앙으로 나오는 동안 등타령을 연주하다가, 제단을 만들고 그 위에 떡을 올리고 나면 연타를 친 후, 소년들이 제단 주변에 등을 내려놓고 중앙에 모이면 접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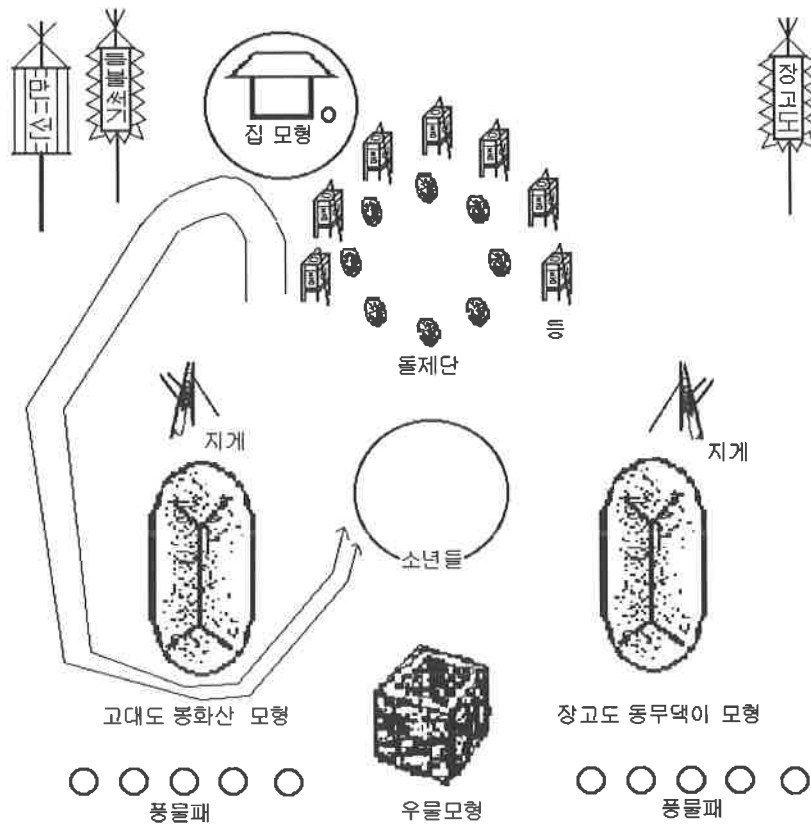
☞ 소년들

대장을 따라 놀이마당 중앙으로 오다가, 대장이 떡을 제단에 올리는 동안은 원을 만들며 돈다. 제단이 모두 꾸며지고 풍물패의 지시가 내려지면 흩어져서 등을 돌 제단 주변에 놓는다. 풍물패가 연타를 치면중앙으로 뛰어나간다.

떡을 얻을 때 가장 뒤에 있던 소년 2명은 떡을 얻고 이동을 시작할 때 대열에서 이탈하여 서둘러 <그림-18>에서와 같이 돌을 날라다 제단을 만든다.

☞ 대장

중앙으로 들어와서 돌 제단을 만드는 동안 소년들 앞에 위치해서 중앙에 원을 만들며 돈다. 제단이 모두 만들어지면 떡을 지게에서 내려 제단에 올려놓는다. 풍물패가 연타를 치면 중앙으로 뛰어나간다.



〈그림-18〉 제단 만들기 대형

☞ 지게꾼

중앙으로 오다가 돌 제단 주변에 지게를 내려놓는다. 대장이 지게에서 떡을 내려 제단에 모두 올리면 지게를 섬모형 뒤로 옮겨 놓은 후 소년들과 합류한다.

파. 제지내기(동산제)

제단이 모두 꾸며지면 다음과 같이 제를 지낸다.

☞ 풍물패 - 잣은 이채 / 연타 / 긴 이영

대장과 소년들이 중앙으로 나오면 연타를 잡고 한바탕 춤을 출 수 있도록 잣은 이채를 연주한다. 대장이 『---해주시길 비나이다--』라고 빌 때 『다--』부분에서 연타를 짧게 친 후 접는다. 긴 이영을 2회 반복한다.

☞ 소년들

풍물패가 연타를 접으면 한바탕 춤을 춘다. 풍물패가 장단을 접으면 무릎을 꿇고 앉는다. 대장이 『---해주시길 비나이다』라고 빌고 풍물패가 연타를 치고나면 긴 이영을 2회 반복한 다음 서 있다.

긴 이영을 할 때는 첫번째 이영은 소리만, 두 번째 이영은 손을 이마에 올리며, 세번째 이영은 엎드려 절을 하면서 한다.

☞ 대장

풍물패가 연타를 접으면 한바탕 춤을 추다가 풍물패가 장단을 접으면 무릎을 꿇고 앉아서 다음과 같이 장고도 주민들이 고기를 많이 잡게 되길 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용왕님 전 비나이다
금년 한 해는 그럭저럭 지냈거니와
명년 한 해는 장고도에 재물이 와서
배에 가득하게 해주시고
갯바닥에 조개나 굴도
모두 장고도로 모이게 해주시고
연평도의 조기 떼도
모두 장고도로 모이게 해주시길 비나이다-----』

풍물패가 연타를 치고 접으면 긴 이영을 2회 반복한다.

긴 이영을 할 때는 첫 번째 이영은 소리만, 두 번째 이영은 손을 이마에 올리며, 세 번째 이영은 엎드려 절을 한다.

하. 고기때 불러모으기

긴 이영이 끝나고 풍물패가 소리를 접으면 대장은 소망하는 내용을 담은 주문을 외치고, 소년들은 그 주문 속에 나타난 어류들의 시늉을 하거나 대장의 주문에 소리로 맞장구를 쳐주는 행위를 한다. 즉 대장과 소년들이 묻고 답하는 형태로 고기때 불러모으기를 하는데 방법은 다음과 같다.

☞ 대 장

장고도에 여러 가지 해산물이 물려오기를 기원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즉흥적으로 지어 외친다.

☞ 소년들

아래와 같이 대장이 외치는 주문 속에 나타난 해산물들이 물려오는 시늉을 하거나, 소리로 표현하여 답을 한다.

☞ 풍물패

소년들이 ‘와--’하고 답 할 때는 연타를 치어 분위기를 고조시켜 준다.

『대 장 : ‘판서구지에 멀치 때를 모두 불러모으자 -’

소년들 : 와 -- --

대 장 : 버너에 바지락을 모두 불러모으자 -

소년들 : 짜갈, 짜갈, 짜갈, ……

대 장 : “연평도(延坪道) 조기 때는 다 모여라 -”

소년들 : 보골, 보골, 보골……

대 장 : “흑산도(黑山道) 갈치는 다 모여라 -”

소년들 : 와 와 와……』

거. 떡 나눠주기

고기때를 불러모으고 나면 이제부터는 떡 나눠주기를 하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대 장

풍물패가 연타를 멈추면

『선달 그믐날 떡을 못한 어려운 집이 있을 테니

골고루 나누어 드리자』

라고 외친 후, 소년들이 『그러자』 라고 대답하면 떡을 지게에 올린 다.

☞ 소년들

풍물패가 연타를 멈추고, 대장이 『---나누어 드리자』 라고 외치면 『그러자』 라고 대답을 한 후, 대장이 떡을 지게에 올리는 동안 한바탕 춤을 춘다.

☞ 풍물패 - 잣은 이채

놀이꾼들이 한바탕 놀고나면 연타를 접은 후, 소년들이 『그러자』라고 대답하면 짧게 연타를 친 후 접고, 잣은 이채를 친다.

짧은 이채를 연주할 때는 모두 중앙으로 나와 뒤섞여 같이 춤을 춘다.

☞ 지게꾼

소년들이 『그러자』라고 대답을 하면 지게를 지고 제단 옆으로 온다.

☞ 기수, 동네아주머니

소년들이 춤을 출 때 중앙으로 나와 뒤섞여 참여한다.

너. 인사 및 퇴장

☞ 모든 놀이꾼

한바탕 춤을 춘 후 풍물패의 장단을 맞추어 자리에서 인사를 한다. 등타령을 하면서 입장할 때 순서로 원을 만들다가 대형이 갖춰지면 풍물패의 지시에 따라 퇴장한다.

☞ 풍물패

춤판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나면 장단을 접는다. 인사가락을 연주하며 다같이 인사를 한다. 등타령을 연주하면서 입장대형과 같이 순서를 갖춘 후 퇴장한다.

☞ 대장, 지계꾼

퇴장을 시작하면 중앙을 지나갈 때 대장과 같이 대열에서 빠져나와 관중석으로 가서 떡을 나눠준다.



문제점 및 제언

제1절 문제점

가. 놀이의 성격이 분명하지 않다.

등불써기놀이의 성격은 어느정도 분명하다. 그러나 등바루놀이의 성격은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규수제인지, 성년식인지, 아니면 풍어제의 성격을 지녔는지가 분명하지 않아 놀이를 하면서도 중심이 없이 전승되고 있다.

나. 원형을 찾기가 어렵다.

우리 나라가 경제성장을 하기 전까지만 해도 각 지역의 토속적 민속놀이는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함보다는 그 지역의 정서와 정신을 지키면서 순수하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다. 그러나 이런 놀이들이 근래에 들어와 지역의 민속놀이들이 각종 문화행사나 경연대회에 참가하여 남들에게 선보이기 시작했고, 또 그러기 위해 조금씩 체계화되기 시작했다. 그 과정 속에서 전통적인 민속놀이는 본래의 수수함을 잃고 많은 변화와 변형을 거듭하며 보여주기 위한 놀이로 전락하게 되었다. 심지어 멋있는 놀이를 보여주기 위해 성격이 전혀 다른 놀이로 둔갑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등불써기놀이나 등바루놀이 역시 각종 경연대회 및 문화행사에 참여하면서 지나치게 현대화되거나, 내용이 원형에서 멀어져 옛것의 흔적을 찾기가 어렵게 되었다.

다. 놀이의 목적이 놀기 위한 것인지 어물채취를 하기 위한 것인지가 분명하지 않다.

우리 나라 도서지역 민속놀이를 목적에 따라 분류할 때 그 방법은 여러 가

지가 있겠으나, 그 중 하나는 놀기 위한 놀이로 분류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풍어를 기원하는 놀이로 분류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등바루놀이의 목적을 살펴보면 놀이의 성격과 마찬가지로 어느 것이 주인지가 분명하지 않다는 것이다.

라. 전문가에 의해 연출될 뿐이며, 일체성이 결여되었다.

민속놀이라 하면 적어도 그 지역에서 태어나, 그 지역의 정서를 익히며 자라서, 그 지역의 정서를 가지고, 놀이의 성격과 목적, 특성 등을 자연스럽게 습득한 사람들이 순수하게 행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등불씨기나 등바루놀이는 특정한 사람들이 교육을 받아 놀이의 외관상 모습만 연출하고 있을 뿐 실제 장고도에 거주하는 그 지역 사람들도 같이 참여하여 놀이를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일체성이 결여되어 있다.

제2절 제 언

지금까지 필자는 장고도의 등바루놀이와 등불씨기 놀이에 대하여 여러 문헌과 현지 주민들의 증언을 통하여 실제 섬에서 진행되었던 내용과 시연과정을 기록하였다.

이 놀이들이 현재는 행하여지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현지 주민들 중에서도 이 놀이의 전통적 전 과정을 재현하며 말해 줄 수 있는 분이 없다. 따라서 현재는 필자가 정리한 내용이 부족하지만 최선의 결과라고 생각한다.

문화는 항상 시대에 따라 변화하면서 전승되어 가는 것에 착안한다면 필자가 정리한 내용이 현대에 와서 변형된 것이라 하더라도 보령지역 전승민속놀이로서 보존하고 앞으로 더욱 계승 발전시켜 나갈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본 내용을 중심으로 관청의 관심과 지원아래 장고도에서 마을 사람들이 이 행사를 계속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만세보령문화제등의 행사에서도 많은 시연의 기회를 가져야 할 것이다.

◆ 도움말 주신 분들 ◆

(가나다 순)

성 명	성 별	나 이	주 소
강 태 산	남	93세	충남 보령시 오천면 장고도
남 운 균	남	69세	충남 보령시 오천면 장고도
박 동 심	여	68세	충남 보령시 오천면 장고도
박 두 환	남	66세	충남 보령시 오천면 장고도
박 정 식	여	71세	충남 보령시 오천면 장고도
박 종 섭	남	63세	충남 보령시 오천면 장고도
편 명 순	남	74세	충남 보령시 오천면 장고도
편 명 예	여	80세	충남 보령시 오천면 장고도
편 상 범	남	45세	충남 보령시 동대동 주공아파트
편 수 범	남	41세	충남 보령시 죽정동 현대아파트
편 연 심	여	62세	충남 보령시 오천면 장고도
편 월 분	여	81세	충남 보령시 오천면 장고도
편 제 환	남	64세	충남 보령시 오천면 장고도
하 상 기	남	74세	충남 보령시 오천면 장고도
한 순 자	여	69세	충남 보령시 오천면 장고도

◆ 참고 문헌 ◆

(참고한 순으로 정리함)

1. 임재해, 『한국민속과 오늘의 문화』, 민속학총서 3, (서울: 지식산업사, 1994).
2. 한국민속사전 편찬위원회, 『한국민속대사전』, (서울: 민중서관, 1998).
3. 김선풍, 『민속놀이와 축제』, <민속놀이와 민중의식>, 민속학회 학술총서 1권, (서울: 집문당, 1996).
4. 『두산세계백과사전 EnCyber』, <http://www.encyber.co.kr/>.
5. 성병희, 『민속놀이의 특성과 연구사』, <민속놀이와 민중의식>, 민속학회 학술총서 1권, (서울: 집문당, 1996).
6. 이필영, 『생활문화』, <島嶼誌> 中, (대전: 忠淸南道, 1997).
7. 대천문화원, 『이 고장 전승민속』, <우리고장의民俗>, 第3輯, 再版, (충남: 대천문화원, 1997).
8. 보령군, 『내고장 保寧』, (충남: 보령군, 1983).
9. 車京哲, 『오천의 어제와 오늘』, (서울: 태봉기획, 2000).
10. 保寧郡誌編纂委員會, 『保寧郡誌』, (충남: 보령군, 1991).
11. 윤원석, 『우리고장의 민속놀이』 <우리고장의民俗>, 第1輯, 再版, (충남: 大川文化院, 1996).
12. 김태정,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 꽃 백 가지』, 10쇄 (서울: 현암사, 1994).
13. 學園出版公社事典編纂局, 『學園世界大白科事典』, 25卷, (서울: 學園出版公社, 1994).
14. 이희승, 『국어대사전』, 第32刷, (서울: 민중서림, 1989).

15. 스즈끼 후미코, 『長古島の 儀禮生活』, <大保文化>, 第2號, (충남: 大保文化研究所, 1992).
16. 나도승·최원희, 『인문환경』, <島嶼誌>, 中, (대전: 忠淸南道, 1997).
18. 한창균·김기태, 『문화유적』, <島嶼誌>, 中, (대전: 忠淸南道, 1997).
19. 박계홍, 『보령군의 민속』, <충청지역의 문화유적 제1집>, (백제개발연구원, 1986.).
20. 보령시, 『保寧의 地名 (上)』 (충남: 보령시, 1998).
21. 김태균, 『방언과 구비문학』, <島嶼誌> 中. (대전: 충청남도, 1997).

장고도의
등바루놀이 · 등불써기놀이

인쇄일 / 2001년 12월 일

발행일 / 2001년 12월 일

저 자 / 류 재 균

발 행 / 대천문화원(원장 윤병배)

인 쇄 / 제일문화사

〈비매품〉

장고도의

등바루놀이 · 등불싸기놀이

류재균(柳在均)

- | | |
|-----------|---|
| 1988 | 공주사범대학 음악교육과 4년 졸업 |
| 1998 | 공주대학교 대학원 졸업 |
| 1990-2000 | 대전서중, 한내여중, 주산산업고 근무 |
| 1997-2000 | 민속시범학교 지도교사
(주산산업고-등불싸기놀이, 충청웃다리풍물) |
| 1997 | '제4회 전국 청소년 민속예술제' 충남대표팀 지도교사
(등불싸기놀이 '은상' 수상) |
| 2001 | 현 주산중학교 재직 |
| 2001.12 | 장고도의 등바루놀이 등불싸기놀이 집필 |